

연구총서 99-08

•

김정일의
퍼스널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 성 철

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 정치지도자의 행위는 비용과 효용을 따지는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한 배경 및 현재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 고착화된 스타일과의 종합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김정일의 퍼스널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은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김정일에 관한 연구가 접근 불가능으로 인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관련 자료들을 모아 퍼스널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재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연계를 도식화시키고 여기에 김정일의 사례를 적용하는 접근을 택하였다.

1. 퍼스널리티: “극화형을 동경하는” 강박형 및 냉철형

김정일은 퍼스널리티에 있어서 강박형 요소와 냉철형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부정적 유형에 속한다. 이와 같은 퍼스널리티에서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에 비해 성과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 적은데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상존하게 된다. 노력과 보상 사이의 심리적 괴리는 “사적 동기를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라스웰(Harold D. Lasswell)식의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김정일에게서는 정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모성애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 구축의 장애 현상은 자기보존에 대한 강박적 관념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애증의 감정 극단화를 겪게 만들었다.

김정일의 퍼스널리티는 자아의 방어 메커니즘으로서 대범함을 보이는 광폭정치로 치환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극화형을 동경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그는 실제로는 치밀하고 용의주도하여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는 동시에 의혹, 불신, 애증이 교차하는 심리상태를 보이는 지도자이다. 그러나 남 앞에서는 대범하게 보이기 위해 과시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기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 정당화의 기반: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전이

김정일은 기존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예외적 자질에 기초하기보다는 제도적 직책을 획득하고 이상화를 통해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전이(transfer of routinized charisma) 받음으로써, 여기에 배태된 권리와 자질을 부여받았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해왔다. 그는 1970년대 초부터 노동당의 핵심 직책을 차지하고 당권에 깊숙이 개입하는 동시에 김일성주의를 선언하여 스스로 주체사상의 유일한 권위적 해석자가 되었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민군최고사령관, 공화국원수,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의 군 관련 직책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성직자가 특정한 직책을 가지고 의상을 걸침으로써 경외스러운 카리스마를 전이 받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김정일이 전이 받는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김정일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일체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러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 김일성”이라는 구호를 통해 김정일을 김일성의 화신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간부들과 주민들의 역

량을 결집시켜 새로운 혁명적 동원으로 이끌기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과 연계시켜 예를 들어본다면, 현재 북한에서 진행중인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

또한 카리스마의 전이는 김정일의 권위행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김정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으로서, 지도자적 자질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하여 심리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통치스타일: 위계와 경쟁의 혼용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그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되어 많은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김정일의 퍼스널리티 및 카리스마 유형과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는 형식주의 모델과 경쟁적 모델이 혼용된 통치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 퍼스널리티가 통치스타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그는 확고적이고 엄격하며 용의주도한 퍼스널리티로 인해 공개된 토론이나 의견교환보다는 조직과 기구를 통한 통제를 가하는 통치스타일을 띠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의혹, 불신감, 경쟁심, 질투심으로 인한 권력독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경쟁과 견제에 바탕을 둔 통치스타일을 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그의 지도자적 이미지가 자신만만한 혁명적 또는 초인적 카리스마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 결정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최종 결정을 자신이 내리는 집체적 모델의 통치스타일은 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은 노동당, 인민군, 내각, 공안기구 등을 별도로 장악하고 정보를 취합하면서도 이들 사이에는 정보의 흐름이나 핵심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삼가하게 한다. 그의 지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내려지며 자신에 의해 직접 점검된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일정 수준에서는 협의·조정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임무를 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한편, 김정일은 각 기구의 최고 직책의 소유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그는 차계선 또는 차차계선의 직책을 가진 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임무도 주고 보고를 받는다. 따라서 공식적인 직책상의 서열이 실질적인 서열과 다르기도 하며 심지어는 뒤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민무력상인 김일철은 실질적 서열에 있어서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나 총참모장인 김영춘보다 결코 높지 않다. 김정일은 위계와 경쟁을 혼용한 이 같은 통치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4. 거시적 함의: 정치체계의 적응지체

김정일에 대한 이상과 같은 분석만으로 현 정치체계의 향방을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김정일의 퍼스널리티, 카리스마, 통치스타일에 비추어 보건대 정권 차원에서 북한 정치체계는 일정기간 동안 별다른 동요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부적인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대외관계의 변화된 부분을 인정하거나 수용하면서 소극적 적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이상의 퍼스널리티, 카리스마, 통치스타일을 지닌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정치체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지체(retardation of adaptive process)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지속적

안정을 보장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의사결정의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고, 관료기구 및 간부들 사이에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차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내투입의 부재로 인한 정치체계의 경화 현상으로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목 차 -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개념 틀	4
2. 퍼스널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의 유형	8
가. 라스웰의 퍼스널리티 유형	8
나. 바버의 퍼스널리티 유형	11
다. 정당화 기반으로서의 카리스마	15
라. 통치스타일의 유형	19
3. 퍼스널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 간의 관계	23
가. 퍼스널리티와 통치스타일	25
나. 카리스마와 통치스타일	26
III. 성장과정과 퍼스널리티 형성	28
1. 성장과정	28
가. 유년기	28
나. 청소년기	32
다. 청년기	35
2. 퍼스널리티 유형	39
가. “극화형을 동경하는” 강박형 및 냉철형	39
나. 적극적·부정적 유형	46

IV. 정당화의 기반과 지도자적 자질	50
1. 이상화와 카리스마의 전이과정	50
2. 자질 검증	58
가. 열정	60
나. 균형감각	63
다. 유인력	67
라. 비전	69
마. 책임의식	69
V. 통치스타일과 정치체계의 운용	72
1. 형식주의 모델과 경쟁적 모델의 혼용	72
2. 통치스타일의 특징	76
가. 당·군의 분할통치	76
나. 조직의 직접 장악	79
다. 과시적 및 파격적 행태	83
3. 정치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	85
가. 김정일의 과부화된 의사결정	85
나. 수평적 의사소통 결여	87
다. 혁신적 문제해결 불능	89
VI. 결 론	92
참고문헌	96

- 그림 및 표 목차 -

<그림 1> 북한 정치체계의 구성도	4
<그림 2> 분석을 위한 개념 틀	6
<그림 3> 바버의 퍼스낼리티 유형	11
<그림 4> 통치스타일의 유형	21
<표 1> 퍼스낼리티 및 정당화 유형에 따른 통치스타일	24
<그림 5> 김정일의 통치스타일 모델	73

I. 서론

북한과 같이 비민주적 체계에서 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은 지대하다. 대체로 정치적 행위 주체인 정치지도자는 체계의 제도 및 환경의 제약 속에서 행동하는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비민주적 체계에서는 전자가 후자의 제약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거나 후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훨씬 크다. 즉, 비민주적 정치지도자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주체들 사이의 전반적 권위관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이념을 창출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체계를 연구할 때 정치지도자의 통치스타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김정일의 통치는 북한 사회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초반 후계자로 지명되어 당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임명되어 군부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집권은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력은 이 과정에서 이미 검증되기도 하였다.

주목할 것은 김일성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김정일의 통치는 북한 사회와 남북한 관계에 더 직접적이고 심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김정일은 북한의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서 그의 의지, 판단, 행동은 모두 북한의 현재와 장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그의 통치스타일은 남북한 관계의 현실에 중대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일성 생전시의 김정일이 아닌 현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2 김정일의 퍼스널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의 김정일의 통치스타일과 이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올바른 북한 이해는 물론이고 대북정책과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의 심리분석과 정당화의 기반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그의 통치스타일을 분석하고, 이를 북한식 정치체제의 운용과 연결시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김정일에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김정일에 대한 분석이 대체로 그의 병리적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거시적 측면과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과 정치체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논리 비약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일 개인의 중요성만큼이나 그와 정치체제 전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김정일에 대한 연구에서 흔히 퍼스널리티와 통치스타일이 다루어지기도 했지만, 이들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에 관한 다양한 측면이 연구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김정일의 독특성에 대한 강조에 치우친 나머지, 그에 관한 것들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특별한 것인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이 그의 독특성인지 아니면 과연 비민주적 정치지도자들에서 흔히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김정일의 퍼스널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정치체제의 운용과 연결시켜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미시와 거시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김정

일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그의 개인적인 변수들과 전반적 체계의 운용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공개된 것들조차 신뢰성에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북한 정치체계의 전반적 작동에 있어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들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김정일만이 정치체계의 작동에 있어서 유일한 독립변수는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지도자는 정치체계의 제도 및 환경의 제약을 받으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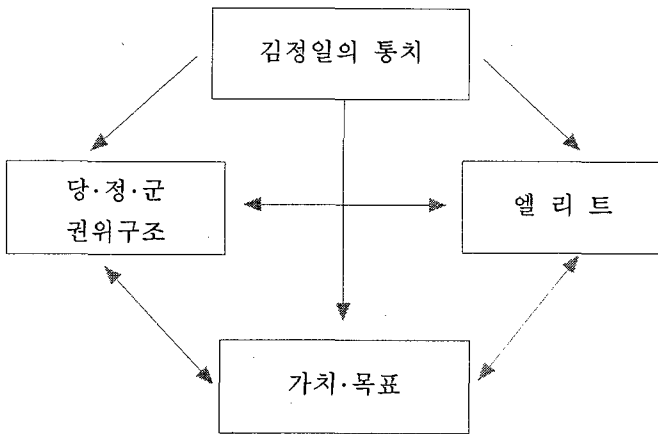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접근방법에 있어서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퍼스낼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연계의 틀을 구성하고, 여기에 김정일의 사례를 적용하는 접근방식을 택했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 틀

먼저 북한 정치체계에서 김정일의 통치가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식이 필요하다.

<그림 1> 북한 정치체계의 구성도



북한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들을 따져보자면, 먼저 엘리트부터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엘리트란 주로 최고지도자로서의 김일성·김정일을 포함하며 여기에 친인척 및 동지적 관계 등으로 엮힌 핵심 간부층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 정치체계가 유일적 지배체제라고 불리

을 정도로 김일성·김정일의 역할과 비중이 막대하였던 만큼, 최고지도자인 김정일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엘리트를 따로 구분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과 그의 통치행위는 다른 엘리트의 그것과 차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할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권위구조는 당·정·군 사이에 존재하는 권위관계의 일정한 패턴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적 지도”라는 이름아래 이루어지는 내각과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위와 권위를 말한다. 주목할 것은 당적 지도가 불변한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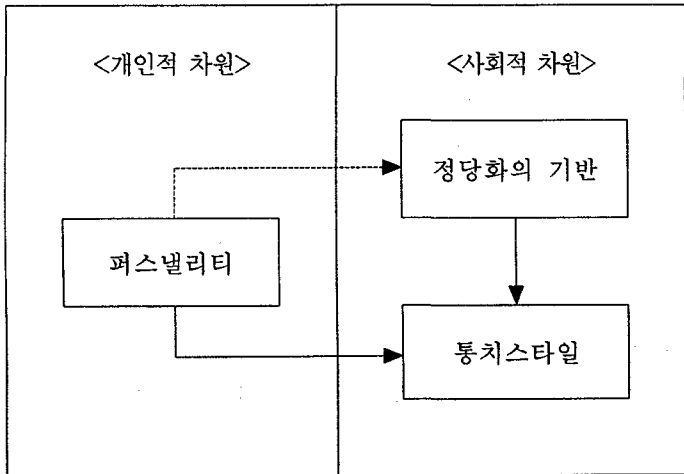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북한 정치체계에서 가치·목표는 주체사상이라는 공식 이념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주체사상은 수령 또는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권위를 정당화하고,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을 복종심을 유도하는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강성대국”이라는 이념적 명제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주체사상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체사상의 기존 명제들보다 새로운 명제들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하위체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김정일의 통치는 정치체계의 정점에 위치하면서 당·정·군의 권위구조의 변화와 엘리트의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가치와 목표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통치행위의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그의 조직 장악력의 확대에 따라 군대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당·군 권위관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의 통치에 따라 “혁명가대(對) 배신자”나 “강성대국론”과 같은 직설적이고 통속적인 명제들이 북한의 이념적 가치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엘리트 구성

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가 발생하는 바, 김일성 시대의 인물인 서관희와 이봉원이 숙청되고 황장엽이 망명함에 따라 주변의 이데올로그들에 대한 억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엘리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그 구성 자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정·군 권위관계, 엘리트, 가치·목표 사이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정·군의 권위관계, 특히 당·군관계의 변화에 따라 “선군혁명론(先軍革命論)”과 같은 이념적 가치의 변이가 발생하였으며 강성대국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이같은 이념적 가치의 변화는 결국 당·정·군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군사문화의 확산을 부추기고 군대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2> 분석을 위한 개념 틀



본 연구는 바로 북한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들 중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통치스타일과 관련되는 요소들로는 퍼스널리티와 정당화의 기반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퍼스널리티는 비민주적 정치체계에 관한 미시 분석의 핵심 부분으로서, 개인적 차원의 성장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퍼스널리티는 다른 요소와 관계를 지니는 바, 정당화의 기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통치스타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의해야 할 것은 퍼스널리티 파악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의 본래적 퍼스널리티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퍼스널리티라 함은 주로 “정치적 인간”(political man)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본래적 퍼스널리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김정일의 광폭정치로 표방하는 대담성은 선전적 의미가 강한 것에 비해 본래적이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정당화의 기반, 특히 카리스마는 해당 정치지도자가 행사하는 권위의 합리적 근거가 된다. 카리스마는 비민주적 체계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카리스마적 자질은 해당 정치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지도자가 각종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국정능력에 대한 대중적 수용을 말하기 때문이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분석은 열정, 균형감각, 유인력, 비전, 책임의식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 속하는 통치스타일은 청장년기의 경험, 즉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태적 측면의 통치방식과 매너를 말한다. 비민주적 정치지도자의 통치스타일은 대체로 자신의 직책을 최대한 활

용하거나 그 이상의 월권을 행사하면서 경쟁자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위구조를 만들어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통치스타일은 인적 및 조직 장악 방식을 포함한다. 인적 및 조직 장악은 반드시 비민주적 지도자에게만 적용되는 요소가 아니라 민주적 지도자에게도 필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체계의 형태를 막론하고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직책과 역할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치역량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단, 민주적 지도자와 비민주적 지도자의 차이점은 사람과 조직을 장악하는 방식에 있을 것이다. 전자는 주로 설득과 동의에 의존하며, 후자는 억압과 기만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요소들 사이에는 <그림 2>에서와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 퍼스널리티는 통치스타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당화의 기반도 통치스타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본 장에서는 개별 요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들 세 요소 사이의 관계를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2. 퍼스널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의 유형

가. 라스웰의 퍼스널리티 유형

정치지도자의 퍼스널리티 유형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로는 라스웰(Harold D. Lasswell)과 바버(James D. Barber)의 것을 들 수 있다.

정치심리학자인 라스웰에 의하면, 정치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권력추구자이다. 김정일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권력추구 성향이 누구보다도 강한 “정치적 인간”(political man)이다. 정치적 인간은 다

른 가치보다도 권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며, 권력과 연관되는 것에 많은 기대를 건다. 또한 권력 획득에 필요한 갖가지의 수단을 운용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라스웰의 관심은 비민주적 정치가의 성향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었다. 즉, 권력추구형 인간의 심리적 동기가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권력추구자인 정치지도자의 행태에 관한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정치는 “사적 동기 또는 개인적 목적이 공공목표로 전환되고 이것이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¹⁾ 다시 말해, 정치란 권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동기를 공적인 활동 속에서 성취하고자 하며 이것을 공적인 이익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동기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치를 이렇게 정의할 때 개인이 가지고 태어나거나 또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퍼스널리티가 장차 자신의 개인적 동기에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스웰은 정치에 영향을 주는 퍼스널리티의 유형을 언급하였는데, 강박형(compulsive type), 극화형(dramatizing type), 냉철형(detachment type) 등이 그것이다.²⁾

강박형은 언제나 긴장감 속에서 생활하며, 주위에 대해 엄격하고 강압적이다. 획일성을 중시하여 모든 사람에 대해 한결같이 표현하므로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유형의 정치가는 세심하고 부분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극화형은 강박형과 매우 대조적이다. 극화형은 자기과시욕과 선전

1) Harold D. Lasswell,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W. W. Norton Co., 1958), p. 38.

2) *Ibid.*, pp. 67~99.

에 관심이 많으며, 교만하고 도발적이며 의분성을 지니고 있다. 대상에 따라 자신의 분위기와 모습을 달리 연출하는 임기응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확실정보다는 다양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화형 퍼스넬리티의 소유자는 일의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대담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분석적이지 못해 세밀성은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박형과 극화형은 매우 대조적이어서 정치가의 퍼스넬리티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분류는 단순화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적 인간도 있다.

강박형과 극화형의 이분법적 분류의 문제를 고려한 나머지, 라스웰은 냉철형을 정치적 인간의 제3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냉철형은 강박형과 극화형의 요소를 다소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냉철형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어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동시에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동적으로 행동한다. 냉철형 퍼스넬리티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무자비한 테러를 저지르게 되며, 애정과 온화함을 과시함으로써 후덕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냉철형의 소유자는 때로는 강박형을 지닌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극화형을 지닌 것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라스웰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냉철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정신생활이 “젯빛의 벽”과 같고 “흙빛의 밑바닥”과 같다. 즉, 현재와 미래를 우울하고 음울하게 보는 정신상태를 보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냉철형의 정치적 인간은 애정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냉정함과 잔인성을 드러내게 된다.

나. 바버의 퍼스넬리티 유형

바버는 퍼스넬리티³⁾가 정치지도자의 세계관과 스타일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큰 방향을 제공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유형들을 제시하였다. 그의 유형은 미국의 대통령들의 퍼스넬리티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만, 정치체계의 형태에 상관없이 정치지도자의 인성과 스타일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논리적 틀을 제공해준다. 바버는 “적극적” 대 “소극적” 그리고 “긍정적” 대 “부정적”의 구분에 바탕하여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2×2 매트릭스에 기초한 네 가지의 퍼스넬리티 유형을 제시하였다.⁴⁾

<그림 3> 바버의 퍼스넬리티 유형

적극적·긍정적 (A)	적극적·부정적 (B)
소극적·긍정적 (C)	소극적·부정적 (D)

바버의 “적극적” 대 “소극적”의 구분은 정치지도자의 업무에 대한 집착력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즉, 얼마나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하는가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반면, “긍정적” 대 “부정적”

3) 바버는 퍼스넬리티라는 용어보다는 캐릭터(charact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James D. Barber, *The Presidential Character: Predicting Performance in the White Hous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5), 3rd ed., pp. 8~11.

의 구분은 정치지도자가 정치생활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구분한다. 즉, 행복한가 아니면 슬픈가, 즐길만한가 아니면 실망스러운가, 그리고 효과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하는 느낌과 관련된 것이다. 바버의 네 가지 유형의 퍼스넬리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⁵⁾

① 적극적·긍정적 유형(A): 많은 활동과 만족감 사이에 일치성이 있다. 주위 사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바, 상대적 성공을 이루어 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유형의 정치지도자는 생산성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듯이 융통성 있게 그리고 적응력 있게 자신의 스타일을 발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비교적 잘 정의된 목표를 향해서 진보해나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합리적 지배와 두뇌의 활용을 강조한다. 정치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긍정적 퍼스넬리티를 가진 정치지도자는 업적지향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야심과 영감이 인간관계를 무시할 만큼은 아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협력하기를 좋아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반대로 그들의 감정을 잘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것을 일부러 추구하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애정을 잃는 상황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의 사회관계가 일반적으로 따뜻한 편이기는 하지만, 강한 동정을 보여 다른 사람에 깊숙이 개입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류의 정치지도자들은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비난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 지도, 정서적 지지를 구하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다.

5) Ibid., pp. 9~10 & 535~6.

② 적극적·부정적 유형(B): 높은 노력에 대비되는 낮은 정서적 보상 때문에 긴장감이 존재한다. 어떤 목표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며 근심을 떨쳐 버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라스웰이 말하는 강박형의 퍼스널리티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야심적이며, 높은 것을 추구하고, 권력을 지향한다. 이들의 주위에 대한 태도는 공격적이며, 이런 감정을 다루는데 스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의 이미지는 때때로 모호해서 연속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겨워 하며,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 정치에 모든 에너지를 바치지만 그 에너지는 내부에서 왜곡되어 나타난다.

적극적·부정적 유형은 적극적·긍정적 경우처럼 업적지향적이다. 그러나 적극적·긍정적인 유형이 타인의 업적과 함께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것과는 달리, 적극적·부정적 유형은 저돌적이며 적대적 속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업적성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바, 성취하지 못한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반작용적(counteractive)인 동시에 반공포적(counterphobic)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을 늘어놓기 좋아한다는 점에서 방어적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무시해야 하며 또는 개의치 말아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유형의 정치지도자는 열등감과 약점을 보상하려는 사람처럼 보인다.

③ 소극적·긍정적 유형(C):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심과 피상적인 낙관주의 사이에 모순이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유순하며 타인 지향적이어서 이런 유형은 독단적이기보다는 동의를 얻으려 하고 협조적인 대가로 선의적 감정을 표시한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기를 이

끌어낸다. 이런 유형은 정치적으로 삭막한 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희망이 깨질 경우 정치에 대해 실망할 수 있다.

소극적·긍정적 유형에 속한 정치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들의 애정을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지지를 잃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피하려 하며,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써으로써 공격적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은 높은 자존심을 지키려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내적 원천에 있어서 취약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좋은 상황에서는 훌륭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④ 소극적·부정적 유형(D): 자존심이 낮은 만큼 자신의 업무를 의무감에 의한 서비스라고 여긴다. 이 유형의 정치지도자는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를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비정치적 역할에 잘 적응할 수 있으나,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한 경험과 융통성을 결핍하고 있다. 이들의 성향은 막연한 원칙과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갈등과 정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회피하려 한다. 이들은 저급한 정치적인 것보다는 정도(正道)를 걸으려 한다.

소극적·부정적 유형은 업적을 개인적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동시에 업적을 즐기지도 않는다. 이들은 도덕적 헌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깔끔하고 정밀하게 일하고 조직하는 것을 즐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난이나 질책을 받지 않는다. 이런 유형은 외부의 힘에 의해 쉽사리 포기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자제하는 것과 같이 환경을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남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업적을 성취하는데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정치지도자는 사회적

으로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을 도와주는데, 심리적 보상감보다는 윤리적 의무감에서 그렇게 한다.

단순화시켜 요약하자면, 적극적·긍정적 유형(A)은 결과를 얻으려 하며, 적극적·부정적 유형(B)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목표로 삼는다. 소극적·부정적 유형(C)은 애정을 추구하며, 소극적·부정적 유형(D)은 가치를 강조한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퍼스널리티에 대한 유형화 또는 분석이 어떤 정치지도자가 심리적으로 해당 직책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구분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⁶⁾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김정일이 어떤 유형의 퍼스널리티에 속한다는 사실이 그가 최고지도자로서 적절한가 아닌가를 평가해주는 준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 정당화 기반으로서의 카리스마

정당화의 기반으로서 카리스마는 비민주적 체제에서는 물론이고 민주적 체제에서도 간혹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는 정치지도자가 일반 대중과는 다른 독특한 자질을 갖기를 기대하는 성향 때문일 것이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비민주적 체제일수록 카리스마적 이미지는 더 중요한 바, 여기서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을 매혹하는 힘을 가진 지도자적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질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카리스마는 일반적으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Alexander L. George and Juliette L. George, *Presidential Personality and Performanc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8), p. 147.

카리스마는 무엇인가? 현대 사회과학의 기초를 닦아준 베버(Max Weber)의 저작에서 카리스마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정의된다. 하나는 기존의 제도, 관행, 합리성 등을 부정하는 매우 초인적이고 혁명적이 부정적인 강력한 힘이고, 다른 하나는 비밀상적인 열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나타나는 제도에 자리를 물려주는 “일상화된 카리스마”(routinized charisma)이다.⁷⁾ 베버가 지도자의 정당화 기반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말할 때 흔히 전자의 카리스마를 의미한다.

초인적, 혁명적, 부정적 힘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는 기존의 모든 관습의 굴레를 해체하고 기본 사회구조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런 카리스마적 자질은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질서를 혁명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여기서 카리스마는 운동적 면모를 지니게 되는 바, 여기에 참여하는 대중은 과거의 관습과 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대신에 지도자의 요구에 추종하면 된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지시는 논리적으로 또는 위계상의 어떤 직책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개인적 명령권 그 자체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이상의 카리스마는 지도자가 내세운 교리가 실현되면 제도적으로 일상화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일상화된 카리스마는 일정한 직책에 내재해 있으며 그것을 승계 받음으로써 전이될 수 있다. 이것은 종교적 직책 또는 정치적 직책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질로서, 실제 그 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카리스마는 강력한 제도와 일정한 직책을 지닌 개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힘이 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어떤 의미의 카리스마이든지 그것이 대중과의

7)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pp. 53~4.

상호작용이 없이는 가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카리스마가 어떤 지도자에게 내재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중과 유리되어서는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 이 점에서 카리스마는 지도자와 추종자의 내적 자아가 상호 뒤섞여져 있는 하나의 “일체화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베버는 이런 의미에서 “카리스마는 개인의 지극히 예외적인 자질을 말하는데, 이 자질은 실제적인 것이든 혹은 주장되는 것이든 혹은 추정되는 것이든 상관없다. 따라서 카리스마적 권위는 외적인 방법에 의하든 혹은 내재적인 방법에 의하든 사람에 대한 지배라고 할 수 있으며, 피지배자는 특정한 개인의 예외적인 자질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복종한다.”고 설명한다.⁸⁾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자신과 일반 대중 사이의 일체화된 관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⁹⁾ 예를 들어, 히틀러는 “나는 여러분의 모든 것과 여러분이 나를 통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나의 모든 것과 내가 여러분을 통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히틀러의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대중 사이의 내적 교감과 일치화를 추구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이 통치와 지배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의 동시대에 뒤르켐은 베버와는 다른 주장을 전개하였다. 뒤르켐은 개인 중심의 설명에서 벗어나 집단 중심의 설명을 전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감정은 집단에 종속되며 어떤 개인의 지도력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뒤르켐은 카리스마란 개념 차체를 사용하지를 꺼려하였다. 대신 그는 군중이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베버가 말하는 카리스마에

8) Ibid., p. 295.

9) Charles Lindholm, *Charisma* (Oxford: Blackwell, 1990), p. 7.

의해서가 아니라 육체적인 접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개인들은 군중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해체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집단적 도취상태는 문화 차이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뒤르켐의 집단 중심의 설명에서는 지도자란 집단의 화신(group incarnate)에 불과하게 된다.¹⁰⁾ 다시 말해, 지도자는 집단의 이미지를 그대로 발산하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뒤르켐은 지도자가 결코 혁명가이거나 혁신가일 수 없다는 것이다.

뒤르켐의 집단 중심의 설명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일반 대중 사이의 내적 일체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베버의 설명과 집단 중심의 뒤르켐 이론을 연계시켜주는 주장이 르봉(Gustav Le Bon)과 타드(Gabriel Tarde)에 의해 제시되었다. 르봉과 타드에 의하면, 일반 대중은 목표없는 그리고 의미없는 열정에 휩싸여 있으며, 추상적인 것을 거부하며 단순하면서도 과장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일반 대중의 이같은 성향은 어떤 창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는 반복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 르봉과 타드는 대중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심적 인물이 존재해야 하며, 그 인물은 마치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돌맹이”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일반 대중의 열정에 불을 당기는 특별한 개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기보다는, 대중의 비합리적 정서를 반영하고 구현하며 또한 대중의 깊은 욕구를 확장시킴으로써 그들과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¹¹⁾

10) Emile Durkheim,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65), p.460.

11) Lindholm, *Charisma*, p. 40.

요약하자면, 지도자는 일반 대중의 표류하는 의식을 사로잡고 이들과 일체감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가질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특별한 개성 또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의미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불리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일체감을 불러 일으키는 개성이나 능력은 실제적인 것이든 또는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든 상관없다는 점이다. 즉,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내면적인 초인적 능력의 소유자이든 또는 제도적 직책을 통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전이 받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반대중과 내적 교감이 진행되는 경우 정당화되기에 이른다.

라. 통치스타일의 유형

정치지도자의 통치스타일은 그의 퍼스널리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퍼스널리티에 따라 통치스타일, 즉 권력기구를 운용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행태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또한 카리스마는 정치지도자가 행사하는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통치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치스타일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조지 부처(Alexander L. George & Juliette L. George)는 이른바 경영스타일(management style)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 정치지도자들의 통치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지 부처에 의하면, 성년기에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정치 행태에 대한 설명을 위해 통치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¹²⁾ 즉, 퍼스널리티와 카리스마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특정한 상황 속에서

12) George and George, *Presidential Personality and Performance*, p. 161.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통치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지도자의 동기와 일반대중의 정당화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행태에 대한 설명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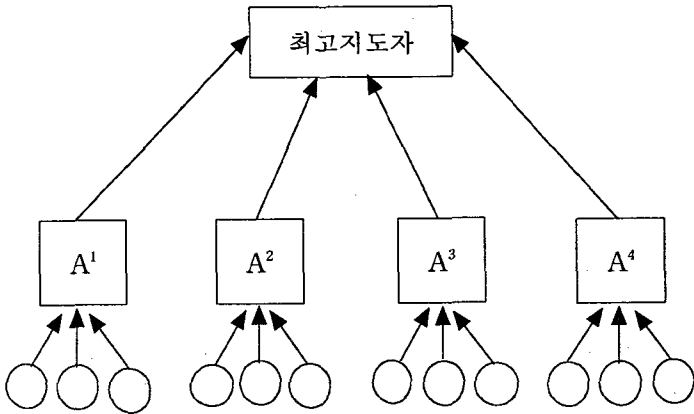
쥬지 부처의 논의는 주로 관료 및 참모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주의적 모델(formalistic model), 경쟁적 모델(competitive model), 집체적 모델(collegial model) 등이 있다.

첫째, 형식주의적 모델은 정책결정의 절차가 명확하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위계서열이 엄격하다는 의미에서 가장 질서 지워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는 참모와 관료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삼으면서 보고를 받음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판단을 들을 수 있지만, 이들 사이의 공개된 토론이나 협의가 불충분할 수 있다. 즉, 최고지도자는 위계서열에 따른 채널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몫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에게 최종 결정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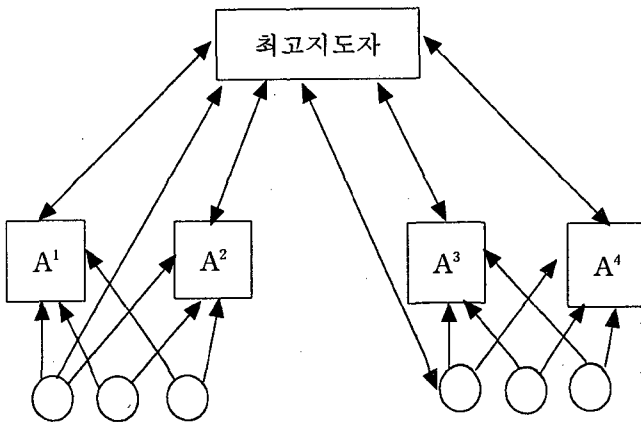
둘째, 경쟁적 모델은 참모와 관료들이 자유롭게 의견과 판단을 개진하도록 자극하는데 비중을 둔다. 이를 위해 경쟁적 모델은 공식 조직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최고지도자에 이르는 채널을 다양화시켜 놓는다. 여기서 최고지도자는 공식 조직을 뛰어넘어 일정한 과제를 중복적으로 내려주는 반면, 참모 및 관료들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문제에 대한 파악과 해결책을 최고지도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최고지도자는 이것들을 선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과부하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그림 4> 통치스타일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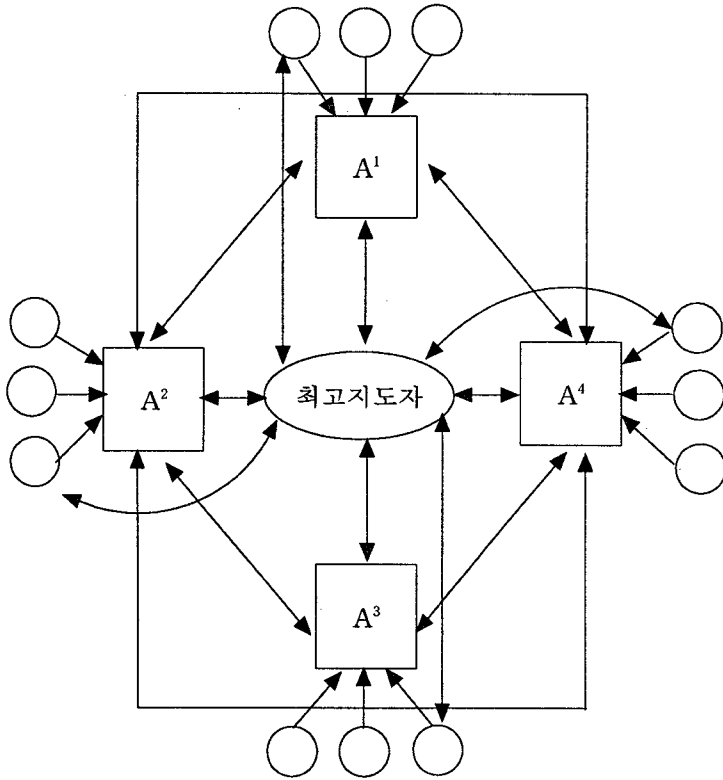
[1] 형식주의적 모델



[2] 경쟁적 모델



[3] 집체적 모델



셋째, 집체적 모델은 위의 두 가지 모델의 장점을 취하는 동시에 취약점을 극복하려고 한다. 최고지도자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참모와 관료들 간의 다양한 견해를 가능한 한 조정하고 종합하여 문제해결에 최대한 근접하게 하는 팀을 형성시킨다. 각 참모와 관료는 개인으로서 최고지도자에게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

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창출해 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참모와 관료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일반론자로서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집체적 모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쟁과 다양성이라는 이점을 살리면서도, 참모와 관료들이 최고 지도자의 관점을 인식하도록 하여 편협한 결정을 회피하도록 만든다.

주목할 것은 이상 세 가지 모델은 통치스타일에 관한 기본 모델이며, 실제 정치지도자의 통치스타일은 정확히 한가지 모델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모델은 통치스타일에 관한 이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퍼스널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 간의 관계

통치스타일은 퍼스널리티 및 정당화의 기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특히 퍼스널리티로부터 받는 영향은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퍼스널리티 및 정당화의 기반과 통치스타일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본 절에서는 퍼스널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기로 한다.

<표 1> 퍼스넬리티 및 정당화 유형에 따른 통치스타일

			통치스타일		
			형식주의 모델	경쟁적 모델	집체적 모델
퍼스넬리티	라스웰의 유형	극화형	○		
		강박형 *	○	△	
		냉철형 *	△	○	
	바버의 유형	적극적·긍정적		△	○
		적극적·부정적 *	○	△	
		소극적·긍정적			○
		소극적·부정적	○		
	정당화 유형	초인적·혁명적 능력의 카리스마	○		△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전이*		○	△		

주) * 표시는 김정일의 유형에 해당함을 뜻함.

가. 퍼스넬리티와 통치스타일

먼저 퍼스넬리티 유형 중에서 라스웰의 유형에 따를 경우, 극화형은 자기과시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으로 인해 주로 자신의 부하들을 위계적 질서를 통해 통치한다. 한편, 강박형은 획일적이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원하므로 형식주의 통치스타일을 택하는 동시에 권력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참모와 관료들을 경쟁적으로 다루려는 경향도 있다. 또한 엄밀하고 우울하며 애정과 온화함을 과시하는 정신상태의 냉철형은 자신의 참모와 관료들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아 이들을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관료기구를 통한 권력유지를 위해 형식주의적 모델을 적용하기도 한다.

주목할 것은 라스웰의 유형은 비민주적 정치지도자에 대한 퍼스넬리티를 가정하고 있는 까닭에 주변 참모와 관료들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집체적 모델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라스웰의 퍼스넬리티 유형 중 어떤 것도 통치스타일로서의 집체적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

바버의 유형에 따를 경우, 퍼스넬리티와 통치스타일간의 관계는 다음의 논리적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① 적극적 대 소극적: 적극적 퍼스넬리티는 많은 정치적 활동과 노력을 보이며 권력행사를 즐기든 또는 권력을 유지하는데 보다 많은 신경을 쓰든 권력에 대한 높은 집착을 보인다는 점에 주변 참모와 관료들을 경쟁적으로 경영하려는 경향을 다소 지니고 있다. 즉, 적극적 퍼스넬리티는 소극적 퍼스넬리티에 비해 권력확보를 위한 경쟁적 모델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② 긍정적 대 부정적: 긍정적 퍼스넬리티는 독단적이기보다는 주위

의 견해를 수용하거나 동의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체적 모델의 통치스타일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 퍼스넬리티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산시키면서 완벽주의 또는 정도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로 관료기구의 위계 질서를 통한 형식주의적 모델의 통치스타일을 구사하게 된다.

나. 카리스마와 통치스타일

합리성보다는 카리스마에 의존하여 정치적 권위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지도자는 경쟁적 모델이나 집체적 모델보다는 주로 자신의 참모나 관료들을 형식주의적 모델의 통치스타일에 의존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 행사가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며 자신이 관료기구의 정점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그는 주변의 참모와 관료들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흔히 자신을 보위하는 위계질서에 의존한 형식주의적 모델의 통치스타일을 택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관료기구의 합리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카리스마를 보다 제도화된 형식으로 유지·보존하거나 지도자적 이미지를 전파·확산하려는 수단으로서 관료기구를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주목할 것은 정치지도자가 소지한 카리스마의 속성에 따라 통치스타일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르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초인적·예외적 또는 혁명적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지도자는 주로 형식주의적 모델에 의존하면서도 집체적 모델의 요소를 가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러하다. 반면 일상화

된 카리스마를 지닌 많은 정치지도자는 형식주의적 모델에 다소의 경쟁적 모델을 활용할 것이다. 이 경우 정치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제도에 의해 일상화된 까닭에 자신의 권력유지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참모와 관료들 사이에서 경쟁적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직책에 따른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은 “극화형을 동경하는” 강박형 및 냉철형, 적극적·부정적 유형의 퍼스낼리티를 지니고 있으며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전이 받은 유형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퍼스낼리티와 카리스마로 인해 김정일은 주로 형식주의적 모델을 따르면서 경쟁적 모델을 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각 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III. 성장과정과 퍼스널리티 형성

1. 성장과정

일반적으로 퍼스널리티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요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경험과 경력 등이 복합적으로 한 개인의 퍼스널리티와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요소가 어떤 측면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구분해 내기 힘들다. 따라서 정치심리학에서는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한 이후의 행태를 분석하고 성장과정에서의 특징적 요소들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흔히 성년이 되어 드러난 행태를 통해 퍼스널리티를 논하는 귀납적 설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정일의 경우, 성장과정과 경력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퍼스널리티를 구분해 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먼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드러난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특징적 요소를 밝혀보기로 한다.

가. 유년기

김정일의 출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남한에서는 그가 시베리아의 1942년 2월 16일 보로실로프 지역(남야영)에서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동년 6월 19일 브야츠크 밀영(북야영)으로 옮겨 살다 1945년 11월 16일 생모 김정숙과 함께 입북했

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³⁾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백두산 밀영 출생설을 내세워 왔다. 즉, 김정일은 백두산 밀영 통나무집(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 막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 1941년 6월부터 1943년 3월까지 이 통나무집에 머물면서 국내 및 장백지구 항일조직들을 지도했다고 주장하였다.¹⁴⁾ 북한은 또한 백두산 밀영 출생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1982년 2월 15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일의 40회 생일을 맞이하여 그에게 영웅칭호와 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발표하면서 그의 출생지를 백두산 밀영으로 공식 발표하였다.¹⁵⁾

북한에서 백두산 밀영 출생설을 내세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김정일의 출생에 대한 어떤 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이 백두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출생과 관련하여 신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백두산 밀영 출생설이 주체사상이 북한사회를 일색화시킨 시대인 1980년대 초반부터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후계자인 김정일의 출생을 소련 영내로 밝힐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백두산 밀영 출생설은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한 제6차 노동당 대회 이후인 1984년 재일동포들이 쓴 전기 「김정일지도자」에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

13) 박규식, 「김정일평전」 (서울: 양문각, 1992), p. 17.

14)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pp. 12~3.

15) 1998년 6월 출판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에서도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새벽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셋째는 해방 전 김일성의 행적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김일성이 한반도 내에도 잠입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 시기에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두만강 연안의 왕청, 훈춘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몇 차례 강을 건너와 백두산 내 비밀근거지와 조직들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김정숙에게 위임하고 돌아갔다는 주장이다.¹⁷⁾ 결국 북한은 김일성의 백두산 밀영출생설을 통해 김일성의 국내투쟁 이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유년기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후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될 김일성의 장남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김정일이 태어날 당시는 항일전쟁 중인데다 김정숙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생모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생모의 젖이 모자라 유모 이재덕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에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구축의 장애”를 낳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신 김정일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에 둘러싸여 보살핌을 받으면서 유년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완에 의하면, 전문섭, 조명록, 백학림 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김정일을 희망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마치 고향의 동생 또는 조카로 여기면서 정성스럽게 돌보았다는 것이다.¹⁸⁾ 여기서 김정일은 군대 분위기와 함께 김일성 동료들 사이의 결속력과 의리를 터득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사후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가 공식적인 군 경력이 없이도 군대에 대해 친근한

16)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285.

17)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p. 17.

18) 위의 책, p. 19.

감정 또는 군대에 대해 접근하고 이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경험이었다.

김정일의 유년기에서 가장 큰 시련은 그가 7세이던 1949년 9월 생모 김정숙의 사망이었다. 이것이 김정일의 퍼스널리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한편으로 김정일은 생모의 사망에 대한 슬픔을 이기는 의연함을 지키려고 애쓴 흔적을 보인 것은 사실이며, 이는 그가 여동생 김경희를 유치원에 오가는 것을 돌보아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데서 드러났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방황한 흔적을 보인 것도 사실이며, 이에 대해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이 그를 타이르고 위로했다는 것이다.¹⁹⁾

김정숙의 사망은 이에 따른 슬픔 자체보다도 애증의 감정을 증폭시켜주는 계기를 낳았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퍼스널리티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숙이 사망하자 김일성 수상 관저의 교환수였던 김성애와 「임격정」의 저자 홍명희의 딸인 홍기연이 수상관저의 살림살이를 도맡게 되었다.²⁰⁾ 그러던 중 김정일이 10세 되던 해인 1952년 가을 무렵 김일성은 빨치산 출신 동료들의 도움으로 김성애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연령적으로 14살 차이밖에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모의 비서 격에 불과하였던 누이와 같았던 김성애를 계모로 맞이한 김정일은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김정일은 김성애를 어머니로 생각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자신의 숙부인 김영주의 집에 자주 들르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는 김성애가 1953년과 1954년에 김경진과 김평일을 낳게 되자 김성애와 이들 이복동생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무르익게 되었다.

19) 위의 책, p. 32.

20) 김정일과 김경희 남매는 김정숙 사망 후 김옥순(전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의 부인)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설명도 있다.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p. 286.

김정일의 애정과 증오의 감정은 상승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일은 계모 슬하에서 하나 밖에 없었던 친 여동생 김경희를 극진히 돌보아 주었다. 반면 김경희와 김성애 간의 탐탁치 못한 관계, 김경희와 이복 동생들에 대한 김성애의 차별대우 등에 관한 소문이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 사이에서 퍼질 정도였다.²¹⁾ 따라서 김정일로서는 이런 점에 대해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김정일 자신의 김성애에 대한 반감은 물론이고 김경희에 대한 애정이 김성애와 이복동생들에 대한 증오로 작용하게 되었다.

김정일의 이와 같은 유년기 성장배경은 모성에 결핍으로 인한 신뢰감 구축의 장애를 초래하였으며, 증오심, 적대감, 경쟁심, 질투심, 공격성 등의 부정적 퍼스널리티를 형성하는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²²⁾

나. 청소년기

김정일은 청소년기 학창시절에 정치적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경험을 쌓았다. 1949년 6월부터 1년간 유치원에 다닌 김정일은 1950년 9월 만경대 혁명유자녀 학원 인민반에 입학하였다. 한국전쟁 중 유엔군과 국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자 여동생 김경희와 함께 중국 길림성으로 피난하여 길림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휴전 후 평양으로 귀환해 평양 제4인민학교를 거쳐, 1957년 8월 평양 제1중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 7월 남산 고급중학교 졸업하였다. 북한은 김정일이 남산 고급중학교 시절 그의 학업성적이 전과목·전과정에서 최우등이었다고 선전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거나 또는

21)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p. 35.

22)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서울: 지식공작소, 1996), pp. 143~5.

부정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김정일이 정치, 경제, 문학 예술,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공부했으며,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 대해 과외학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김정일의 청소년기에 중요한 것은 그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의 배려 하에 정치 학습을 하였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이들의 지방출장에 동행하거나 당 행사에 참석하여 국가운영과 관련되는 견문을 넓혔다. 또한 잦은 해외 나들이를 통해 해외문물을 접촉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잠시 동독 항공사관학교에 유학했거나 소련에서 헬기조종술을 습득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²⁴⁾ 그러나 이것은 김정일의 해외 나들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의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퍼스널리티는 그가 17세인 1959년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에 김일성과 함께 동행했을 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서 이들을 수행했던 황장엽이 김정일에 대해 증언했던 부분에서 몇 가지 점을 추출해낼 수 있다.²⁵⁾

첫째, 김정일은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황장엽에게 김일성대학의 학과내용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는데, 질문 내용은 사회과학, 문학, 자연과학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호기심은 물론 순수한 지적 호기심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특별히 과학기술 방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김일성의 관심 사항들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23)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pp. 38~9.

24) 박규식, 「김정일 평전」, p. 32;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p. 221.

25)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p. 125~7.

둘째, 김정일은 17세의 나이에 이미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소련 방문기간에 김일성을 보살피고 수행원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 동시에 수완을 보였다. 김정일은 47세의 젊은 나이인 김일성을 부축하고 신발을 신겨주는 등 단순한 부자관계 사이의 정리를 넘어선 행동을 보였다. 또한 김일성이 공식 행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김정일은 부관과 의사, 간호원 등을 불러모아 하루의 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곤 했다. 당시 김일성을 수행한 대표단 중에는 정치국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이와 같은 임무를 자청하여 수행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권력에 대한 일종의 관심과 수완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김정일은 매우 자존심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이 모스크바대학을 방문하였을 때, 이를 수행한 소련공산당 조선담당 과장이 고급중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대에 유학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그는 평양에 김일성대학이라는 훌륭한 대학이 있으며 자신은 그곳에서 공부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²⁶⁾ 1950년대 말 북한에서는 주체 개념 또는 자주성의 원리가 주창되던 시기로서 김정일이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그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²⁷⁾ 다시 말해, 그가 모스크바대학 대신에 김일성대학에서 공부

26) 탁진 외, 「김정일지도자」, 제1부 (동경: 동방사, 1984), p. 58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대에서 수학하기로 결심한 배경을 “그분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 정책이 꽃피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 기초한 학문을 하시겠다는 투철한 주체 의식의 발현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27) 이와는 달리, 김정일의 모스크바대 유학 거부 발언의 배경을 아버지인 김일성과 떨어지 않으므로써 계모 김성애 및 이복동생과의 경쟁에서 틈새를 주지 않으려는 집요한 부친밀착의 욕구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일철, “김정일체제관리경론과 그 연명술,” 「김정일 체제관리론의 분석과 전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창립 1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 12.

할 것이라는 발언은 반드시 독자적으로 확고한 민족적 주체의식에 기초한 세계관(world view)이 세워져 있어서라기 보다는 개인적 자존심과 복한 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마디로 청소년기의 김정일은 호기심 많고 적극적이며 자존심이 강한 권력 지향적인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다. 청년기

김정일에 대한 정치지도자 수업은 대학시절부터 시작하였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김정일은 김일성대학 재학시 특별 교습을 통해 정책에 관련된 소양을 쌓아나갔다. 당시 김정일의 숙부이자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김영주는 김일성 비서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김정일의 개인 지도교수 그룹을 구성해주는 동시에, 김정일이 재학하는 김일성대학에 대해서도 특별히 배려해 주었다. 김정일은 대학시절 이들 지도교수 그룹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노동당의 정책과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그가 대학생으로서 당 정책과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었다는 것이 일반 학생들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발표한 논문 중 1962년의 “지방 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은 같은 해 8월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 연석회의에서 당 방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한다.²⁸⁾

둘째, 김정일은 김일성 현지지도의 동행, 해외여행, 노동당 주요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치적 견문을 넓혔다. 먼저 그는 현지지도를 동

28)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pp. 44~5.

행하면서 실물경제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방식을 체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김일성 및 김영주와 동행하여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넓힌 동시에, 프라하의 세계민청 뷰로회의에 북한 대표로 직접 참석해 리더쉽을 쌓기도 했다. 그리고 대학 3~4학년 때는 당 정치위원회 회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각회의, 최고인민회의, 군 계통의 군사간부회의 등에 참석하여 정책결정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기관의 핵심인사들과의 교류를 갖게되었다.²⁹⁾

김정일이 청년기에 정치지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는 정치적 인간으로서 몇 가지의 행동양식을 보이기 시작했다.

첫째는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동행하면서 동일한 방식의 교시를 내리기도 했다. 1963년 8월 김일성이 함경남도와 양강도를 현지지도할 때 이를 수행한 김정일의 교시 모방에 관한 일화가 있다. 양강도의 풍산읍에 이르러 김정일은 어느 식료품 매대에 들러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과 된장을 김일성에게 가져가 양강도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관련한 토의를 유도하도록 만드는 수완을 드러냈다.³⁰⁾

둘째는 주위의 어려운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몸을 사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대학시절 평양시까지 재건사업에 참여하여 수렁에 빠진 트럭을 구해내기 위해 호위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몸이 진눈깨비와 흙탕물로 범벅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셋째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최대한 발휘하여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그는 대학생으로서 학생 당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대학 당 위원회와 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업에 간섭하거나 동료들에게 사상검

29) 위의 책, pp. 46~7.

30) 탁진 외, 「김정일지도자」 제1부, pp. 113~6.

토를 시키는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다시 말해, 김정일은 모방 교시를 통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주변의 어려움을 돌보는 “선량한 수상의 아들”의 일화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주변의 조직에 최대한 관여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만들려는 권력에의 집착을 보였다.

김정일에게서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행동양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당 사업을 시작하면서였다. 김정일은 1964년 4월 대학을 졸업한지 5개월인 흐른 9월에 노동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지도원으로 당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여기서 김일성 교시와 당 문헌을 해설하고 침투시키는 일을 다루었고, 문학예술 부문과 출판보도 부문을 직접 지도하였다. 김정일은 1966년 2월 당 선전선동부 지도원, 1968년 2월 당 선전선동부 영화예술과장, 1969년 3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1970년 10월 선전선동부 문화예술담당 부부장의 이력을 거치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였다.³¹⁾

김정일은 특히 1971년 7월 17일 피바다 가극단을 창립하여 「피바다」를 공연한 이래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등 이른바 5대 혁명가극을 만들어 발군의 창작적 예술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예술 능력보다도 혁명가극이라는 주제를 통해 김일성의 과거경력을 과대 포장하여 카리스마를 조장하는 동시에, 예술작품을 통해 김일성의 개인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고위층에서 후계자적 이미지를 전파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매우 치밀한 정치적 행위였음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31) 박규식, 「김정일평전」, pp. 103~5.

이와 같은 경력과 활동을 바탕으로 김정일은 1973년 9월 비밀리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 비서 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실질적인 권력승계 후계자로서 자리매김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물론 김일성·김정일 사이의 권력승계 과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김일성의 판단과 빨치산 일파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크게 양분되고 있다. 황장엽에 의하면, 권력승계는 크게는 김일성의 판단력 부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작게는 김정일이 삼촌 김영주의 주변 갑산파 인사들을 숙청해 삼촌을 승계 경쟁에서 제외시키는 수완을 발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³²⁾ 반면 신경완에 의하면, 김정일과 빨치산 사이의 인간적 연대가 마치 혈연처럼 강해 빨치산 출신들 사이에서는 김일성의 후계자로 일찍이 김정일을 지목하였고 이를 김일성에게 제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주는 김정일을 후원해 주었으며 그 결과 김정일은 1998년 김영주를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신경완은 이 과정에서 김일성이 처음에는 이런 제의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부자간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일성의 역할을 황장엽보다 상대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³³⁾

이상과 같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김정일 후계자 승계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들이 있다. (1) 후계자 문제에 대해 최종 선언(final say)을 한 사람은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이었을 것이라는 점, (2) 부자간의 권력승계라고 할지라도 1973년 당시 31세에 불과한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한 데에는 그의 정치적 수완을 고

32)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p. 168~72.

33)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pp. 19 & 39.

려했을 것이라는 점, (3) 후계자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에 필적할만한 실질적인 경쟁자가 없었거나 또는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예를 들어, 김영주) 김정일보다 정당성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이어서 김정일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 (4) 후계자 결정 이후 김정일은 매우 치밀한 인적 및 조직 관리를 통해 자신의 후계자적 지위를 확대해 나갔다는 점 등이다.

2. 퍼스널리티 유형

가. “극화형을 동경하는” 강박형 및 냉철형

김정일은 라스웰이 논한 강박형, 극화형, 냉철형의 퍼스널리티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그의 퍼스널리티 유형에 대한 탐구는 차후 분석할 통치스타일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여기서는 그의 성장과정에서 퍼스널리티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부분을 살펴보고, 그의 퍼스널리티가 라스웰이 논한 성격 유형 중 “극화형을 동경하면서 동시에 강박형과 냉철형의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 보기로 한다.

김정일의 퍼스널리티에 영향을 미친 성장과정에서의 특성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모성애 결핍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신뢰감 구축의 장애를 체험하였다. 둘째, 그는 김성애 슬하에서 계모와 이복동생들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유일한 친동생인 김경희에 대한 애정이 상승작용하여 나타나는 질투심, 경쟁심, 공격성 등의 감정 극단화의 경험을 겪었다. 셋째, 그는 청년기에 체계적인 정치지도자 학습을 받으면서 유년기의 신뢰감 구축의 장애가 행동화되어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정치적 인간의 속성인 권력추구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기에 그의 정치적 인간의 모습은 더욱 가시화 되었으며, 이것은 권력승계를 둘러싸고 중요한 검증을 거치게 되었다.

성장과정과 퍼스널리티 형성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성에 결핍에 의한 신뢰감 구축의 장애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타 집단과 비교하는데서 드러나는 가치박탈과 다르다.

예를 들어, 카스트로나 등소평의 정치적 인간화 과정은 민족과 국가의 낙후성에서 기인하였다. 카스트로는 하버나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한 탁월한 조직가 및 웅변가로서 젊은 시절부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열등감을 느낄만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미국으로부터의 피해의식과 독재정권으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가치박탈 현상을 경험했을 뿐이다. 한편, 등소평은 16세 되던 해인 1920년부터 5년 동안 프랑스 유학생살을 하였으며, 이 때 그는 중국의 낙후성에 대해 가치박탈을 느끼는 동시에 중국이 세계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카스트로와 등소평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가치박탈은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의 열등감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로서 불균형한 정신상태를 낳게 하지는 않았다.³⁴⁾

이와는 달리, 김정일의 신뢰감 구축의 장애와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은 개인적인 고독감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어린 시절 공허한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아무리 그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충족되어도 역시 외로움뿐이었을 것이다.³⁵⁾

34) Sebastian Balfour, *Castro* (London: Longman Group, 1995), 2nd ed., pp. 21~35; 리처드 에반스, 문수식 역, 「등소평이야기」 (서울: 아이북스, 1995), pp. 11~30.

35) 생모의 사망과 함께 동생 슈라의 사망도 김정일의 외로움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슈라는 1944년 88여단에서 출생했으나 1948년 평양시

이와 같은 성장환경은 그로 하여금 자기보존, 즉 권력에 대한 강박형적 관념을 갖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성격적 특성은 김정일이 1996년 12월 김일성대학 창립 50주년에 참가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행한 비공개 연설에서도 드러난다.

나는 1960년대부터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사업을 똑똑히 도와주는 일군이 없습니다. 나는 단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나의 사업을 도와주지 못할 바에는 있으나마나 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당중앙위원회가 체 구실을 하지 못하여 수령님을 도와드리지 못하였는데 잘못하면 오늘의 당중앙위원회도 그 때의 중앙당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중앙위원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중앙당이 노인당, 송장당이 될 수 있습니다.³⁶⁾

우리는 여기서 김정일의 자기보존에 대한 강박형적 관념은 주변으로부터의 고립감으로도 표출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는 한국전쟁 기간동안 김일성이 남도당계와 소련과의 도전에 직면하여 당내에서의 지위가 확고하지 못했음을 간파하고, 사회주의권 대변력과 김일성 사망으로 자신이 이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이 “단신으로 일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중구역 신양리 소재 전 김일성 판저 연못에서 익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머니와 동생이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1946년 출생한 여동생 김경희만이 김정일의 유일한 혈족으로 남게 되었다. 박규식, 『김정일평전』, p. 26.

36)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일간조선』, 1997년 4월호, p. 316.

김정일의 자기보존적 강박형 요소는 애증의 감정 극단화를 나타내는 냉철형 요소를 동반하고 있다. 이것은 라스웰이 말하는 개인적 동기가 공공목표 또는 공공복리 차원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혁명이 대 배신자”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그는 1995년 12월에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라는 이름의 담화에서 이같은 이분법적 논리를 전개한 바 있다.

혁명가들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사회주의 위업을 반대하면서 공격의 예봉을 노동계급의 수령들과 전세대 혁명가들에게 돌렸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수령과 혁명선배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변질과 붕괴에로 이끌어갔습니다.³⁷⁾

물론 인용 부분은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후 그의 업적에 대해 자신의 유권 해석 이외에 어떠한 해석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언한 것이지만, “배신자”라는 용어로 냉철형의 이분법적 심리상태가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강박형과 냉철형의 퍼스널리티는 그의 청년기에 권력에의 집착, 즉 후계자 계승에 대한 집념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의 충분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였는 바, 특히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극화시킴으로써 김일성은 물론이고 원로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이 1973년 원로들의

37)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중앙방송』 1995. 12. 25.

지지를 받아 노동당 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후계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김정일의 강박형 및 냉철형 퍼스널리티를 보여주는 근거들이 그의 담화 또는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그가 발표한 담화 중에서 1984년의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란 주제의 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담화는 그의 다른 글들과 다르다. 즉, 이 글은 매우 튀는 글체로 쓰여져 있으며, 김정일의 육성이 들리는 듯한 것이다. 대체로 다른 글들은 사후에 주변의 문필가들에 의해 정리되어 매우 세련된 문체를 지니고 있으나, 1984년의 이것은 그렇지 않고 그가 주변의 상황을 매우 지능적으로 엄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는 남북한간의 대립을 체제경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면서 “빈 밥그릇”만 놓고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⁸⁾ 이처럼 김정일은 북한 사회를 객관화하는 퍼스널리티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담화뿐만 아니라 실제 그의 정치적 행태에 있어서도 주도면밀한 퍼스널리티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1994년 북한 핵위기시 NPT 탈퇴에 의한 대응, 강석주·갈루치 회담의 전반적인 지도·감독 및 제네바 기본합의 성사 등은 모두 김정일의 치밀한 퍼스널리티를 보여준다. 또한 1998년 9월의 헌법개정 및 국방위원장 재추대에 의한 공식승계의 완료도 좋은 예이다. 그는 남한 당국과의 직접적인 대화 회피를 위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설위원장을 국가대표로, 내각 수상을 공

38)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당중앙위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187~204.

화국대표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은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국방위원장직만을 맡았다. 일정한 정도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권위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은 그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탈출구가 없으면 그는 주변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직접적인 비난의 화살을 일상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김정일이 “정치적 인간”의 퍼스넬리티로서 강박형과 냉철형의 혼합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들 두 가지 유형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그에게 냉철형 퍼스넬리티의 요소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가 냉철형의 극단적인 형태인 잔인성과 함께 잿빛처럼 음울하고 어두운 정신세계로만 특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냉철형의 퍼스넬리티는 전형적으로 스탈린에게서 발견되는 바,³⁹⁾ 김정일에게서 이와 같은 요소가 병적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도 현 북한 체제를 공고화시키는데 기여한 서관희, 이봉원 등을 숙청·처형하였으며, 황장엽 망명 이후 주변 인물들을 숙청한 것으로 보아 냉철형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전반적 용인술이 순수한 냉철형 퍼스넬리티의 소유자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일의 정치적 인간으로의 성장은 모성에 결핍에 의한 가치박탈에 의한 점도 있지만, 환경적 요소, 즉 권력승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39) 스탈린의 냉철형 퍼스넬리티는 그의 잔인한 테러 행태에서 드러난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출신지역인 그루지아의 반대파들 특히 멘셰비키들을 잔혹하게 다루어서 레닌조차도 그 수법을 비판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테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1937~8년 사이)에는 스탈린은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세르고 오르조니키드제(Sergo Ordzhonikidze)에게 자살을 강요시켰다. 이러한 행위들은 스탈린의 잿빛의 벽과 같은 음울하고 어두운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냉철형 퍼스넬리티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않은 상태에서 김일성과 그의 일파가 김일성 사후 권력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김정일을 유력한 후계자로 후원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한 점도 있다. 이것들은 김정일로 하여금 불안과 의심, 긴장과 초조 등의 요소와 함께, 주도면밀하고 지능적이며 치밀한 요소⁴⁰⁾가 결합된 강박형 및 냉철형의 퍼스널리티를 갖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한편 부자간 권력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이 자체가 권력 획득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특히 스탈린의 경우처럼) 지나친 정신불균형이나 편집광으로 발전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김정일이 보이는 극화적 행태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김정일의 퍼스널리티는 외형적으로 극화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화려하지도 않으며 본래 극화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그는 “극화적인 것을 동경하는” 퍼스널리티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는 “선량한 수상의 아들”로서 생일상을 베풀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평범한 인물을 극찬하며, 남을 위해 선정하는 과시적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김정일이 이같은 극화적인 것을 동경하는 성향은 성장과정에서 신뢰감 구축의 장애현상과 다음 장에서 논하는 제도적 직책을 통한 카리스마의 구축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모성에 결핍으로 인해 타인과의 신뢰감 구축의 기회를 결여하였으며, 다시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려는 방식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는 부자간 세습을 통해 권력과 카리스마를 전이 받으려고 했는 바,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감의 불명료함을 인지하고 여기

40) 이와 관련, 김정일은 매우 세부적인 문제에까지 간부들에게 주의를 주고 바꾸도록 한다. 북한에서는 이것이 그의 미덕인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세 키가와 나쓰오 외, 김종우 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서울: 청정원, 1999), p. 71.

에서의 탈피를 시도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탈피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극화형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아버지인 김일성과 동일시하는 “김일성 = 김정일”이란 구호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나. 적극적·부정적 유형

김정일은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유형 중에서 적극적·부정적 유형에 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극적·부정적 유형의 지도자는 자신의 권한 행사와 이에 따른 성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서 심리적 보상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성향을 드러낸다. 따라서 일정한 긴장감이 심리적 내면의 세계에 상존하게 된다.

김정일이 자신의 노력에 비해 심리적 보상이 낮다고 보는 사례는 이미 인용한 바 있는 1996년 12월 김일성대학 창립 50주년식에 참석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행한 비공개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무엇보다도 노동당 간부들의 업무태도를 질타하면서 자신이 외롭게 일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자신이 1973년과 1974년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면서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20여 년 동안 닦아온 조직 기반이 송장당 또는 노인당으로 전락할 만큼 기능이 쇠약해진 것을 개탄하였다.⁴¹⁾ 물론 노동당이 비록 정책적 측면에서 그 기능이 위축되었다 할지라도, 김정일의 권력 기반으로서 사회저변의 통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김정일 자신도 이 점에서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기대에 대비해서 그의 심리적 만족도는 매우 낮은 셈이다.

41)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 연설문,”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p. 309.

적극적·부정적 퍼스넬리티 소유자로서 김정일의 노력과 보상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인 김일성에 대비한 카리스마적 및 신체적 열등감, 주변에 대한 적개심, 경쟁심, 질투심 등의 감정과 함께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같은 부정적 인식은 최은희·신상옥과의 면담에서 자신을 “난쟁이 똥자루”로 표현한 것이나,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남한과 미국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드러난다.

김정일이 노력과 보상 사이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김정일은 심리적 차원에서 자아의 방어 메커니즘(defense mechanism)을 끊임없이 개발한다. 방어 메커니즘은 내면적 긴장과 갈등이 심해지면 자아의 무의식 속에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면서 외견상 적응을 꾀하는 방식이다.⁴²⁾ 방어 메커니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김정일의 경우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 자신의 진짜 동기를 정당화하는 합리화(rationalization)의 방식을 흔히 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타인들로부터 주목과 찬사를 받기를 좋아하는 자랑꾼이며, 아침하는 사람에게 쏘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방어 메커니즘은 대범함을 내보이려는 광폭정치로 치환(置換)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그는 강박형 및 냉철형 요소를 지녀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도, 남 앞에서는 대범한 것으로 보이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⁴³⁾ 또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이미지를 호탕한 것으로 선전해왔다. 김정일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통크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스케일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경제적 효용가치가 없는 기념비적 대건

42)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p. 140.

43) 위의 책, p. 162.

축물을 짓거나 대중을 동원하는 운동전·속도전을 대규모로 전개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좋아한다.⁴⁴⁾

치환의 형태인 김정일의 광폭정치는 이 밖에도 곳곳에서 나타난다. 1987년 7월 그는 합영회사 경흥외화상점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준공식 후 측근들에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도록 지시하였고, 측근들이 하나같이 만년필 등 값싼 물건을 고르자 “통이 그렇게 적어 어떻게 큰 일을 하겠느냐”고 호통하면서 냉장고, TV, 카메라 등 고가의 물건을 골라 갖게 했다고 한다. 또 이탈리아 사업가 카를로 바에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이 주재하는 파티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그가 유난히 송이버섯 요리를 좋아하자 김정일은 비행기 한 대 분의 송이버섯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치환은 방어 메커니즘이 대체로 긍정적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바, 실제로 김정일의 광폭정치 이미지는 주민들로부터 꽤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김정일은 행태적 차원에서 노력과 보상 사이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특별히 현지도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에서 정의하기를 현지도도는 “현지에 직접 내려가서 하는 지도로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대중 지도방법의 하나”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김정일은 사회주의 대변혁과 김일성 사망으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위축된 분위기와 노동당의 기능 약화에 대해 이를 보상하려는 방도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의 현지도도를 통해서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그는 특히 1997년 10월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이래 “선군(先軍)

44) 중앙일보사, 「김정일」(서울: 중앙일보사, 1994), pp. 44~45.

정치”를 표방하면서 현지도의 70% 정도를 군부대 방문 등 군관련 행사에 할애하고, 최근 들어서는 협동농장, 수력발전소, 건설장 등 경제부분에 대한 현지도를 강화하고 있다.⁴⁵⁾

요약하자면, 김정일은 적극적·부정형의 퍼스넬리티 유형에서 드러나는 노력과 기대에 비해서 낮은 심리적 보상을 보완하기 위해 합리화 및 치환의 방어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지도를 통한 자신의 권위 침투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한다. 이와 같은 대응방식은 업적성취를 못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퍼스넬리티상의 긍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바버의 적극적·부정적 유형은 언제나 강박적이고 긴장감에 쌓여 있으며 적대적이면서도 애정과 온화함을 과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라스웰의 강박형 및 냉철형의 퍼스넬리티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4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news/19991114/2203000000199911141301330.html>

IV. 정당화의 기반과 지도자적 자질

1. 이상화와 카리스마의 전이과정

김정일의 권위는 이상화뿐만 아니라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전이(transfer of routinized charisma)받는 과정을 통해 합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먼저 노동당 제5차 7기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1973년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라는 직책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직책을 동시에 부여받음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권위를 정당화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1974년 8기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전격 발탁됨으로써 보다 구체화되었다.⁴⁶⁾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서기 또는 비서(secretary)는 각 실무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직책이며, 또한 정치국 위원은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최고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실권자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이른바 김일성 유일적 지배, 즉 김일성의 권위가 다른 정치국 위원이나 비서들의 그것보다 훨씬 능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장남인 김정일이 이와 같은 직책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최고통치자의 권력 승계를 사실상 약속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이미 1973년

46) 북한의 언론매체에서는 1974년 2월을 김정일의 공식적 후계자 추대 시기로 잡고 있다. 최근의 「평양방송」 김정일 혁명역사 강좌에서는 1974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추대의 특징을 (1) 자질과 풍모의 뛰어나함, (2) 인민의 의사와 염원에 의한 추대, (3) 김일성 생전시 후계문제 해결,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의 업적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news/1991105/22010000019911051743300.html> 참조.

과 1974년에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노동당 비서와 정치국 위원의 직책에 선출됨으로써 여기에 배태된 권리와 자질을 동시에 부여받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설명이 그가 권력 지향적인 정치적 인간으로서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의 지지를 받을 만큼 나름대로의 수완을 지녔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이 1970년대 초반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전이 받게 되었다는 설명은 그 이전 김정일이 지닌 정치가로서의 자질이 제도적 차원의 승인을 통해 한층 확고하게 굳혀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전이는 노동당의 각종 기구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선전되었다. 먼저 그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다. 김정일은 1973년 9월부터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으며, 점차 “유일한 지도자”, “영명하신 지도자”,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등으로 불리우게 되었다.⁴⁷⁾ 이 중에서도 “당중앙”이라는 호칭이 가장 폭넓게 선전되었는데, 이것은 북한 당국이 의식했든 또는 의식하지 못했든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전이과정을 보다 확고하게 만드는 직책과 관련된 호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직책 획득을 통한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전이과정은 점차 선전매체들을 통해 호칭까지 주어짐으로써 기정사실화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렇다고 김정일이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전이 받는데 피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그는 자신의 성격을 전시하기라도 하듯 매우 지능적이고 적극적이며 치밀하게 대응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유일한 권위적 해석자(authoritative interpreter)가 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상적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전파하려고 했던

47) 통일원, 「김정일우상화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2), p. 16.

듯 하다. 정치위원으로 피선된 일주일 후인 1974년 2월 19일 그는 당 사상사업일군들에게 행한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란 연설에서 김일성의 사상을 “김일성주의”(金日成主義)라고 정식 선언하였으며,⁴⁸⁾ 이즈음 대대적으로 전개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였다. 그가 말한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과 다른 특별한 명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55년 12월 김일성이 주체라는 개념을 정식 사용한 이래 그에 의해 제시된 이론적 명제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김일성주의를 선언한 데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이 아버지의 이론적 명제를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하나의 이즘(ism)으로 승화시킬 만큼 사상과 이념의 독점적 해석자 및 계승자가 되었다는 점을 공표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⁹⁾ 다시 말해, 당시의 김정일은 직책 획득을 통한 카리스마의 전이를 이론적 무장을 통해 보장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노동당 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전이 받으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그가 1974년 4월 “전 당과 은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라는 연설을 통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한 사실이다. 10대 원칙의 주요 내용은 김일성의 사상의 전파 및 신조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절대적 권위의 숭상, 교시의 철저한 집행, 조직규율의 강화, 대를 이은 혁명위업 계승 등으로 요약된다.⁵⁰⁾ 특기할 것은 마지막 원칙인 혁명

48) 탁진 외, 「김정일지도자」, 제2부 (동경: 동방사, 1984), p. 12.

49)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30.

5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위업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김일성·김정일 사이의 권력승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10대 원칙이 김정일의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계기였음은 노동당 제5기 9차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던 사실에서 드러난다고 하겠다.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김정일로의 전이는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군사위원회 위원 등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보다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직책을 통해 김정일은 다른 엘리트들을 제치고 김일성에 버금가는 실력자라는 이미지를 당원과 일반 대중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다시 말해, 김정일은 당원이나 일반대중이 근접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자질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감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1983년 2월 41회 생일을 계기로 “영도자”라는 호칭이 김정일에게 사용되었으며, 군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최고사령관”이란 호칭이 붙었다. 물론 그가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1991년 12월이었기 때문에 1983년 당시에 주어진 호칭은 매우 정치적으로 계산된 카리스마의 조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이 유일한 수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에게 간혹 “수령”이란 호칭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인민의 아버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란 구호가 붙여지기도 했다.

1980년대 내내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전수를 위한 노력은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⁵¹⁾ 사람중심주의 주체사상과 정치사회적 생명체론 등이 대표적인 작업들이다. 그 이전에

51)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p. 310.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정리되지 못한 명제들이 김정일과 그의 이론 참모들에 의해 체계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이른바 수령인 김일성의 사상을 체계화하는 매우 예외적인 지적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탈북자들이 주체사상 중에서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며 그 운명을 결정한다” 또는 “사람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해 나간다”라는 명제들을 가장 설득력 있다고 증언한데서 잘 드러난다. 즉, 이것은 교육적 기반이 취약한 일반대중들조차 인간이 운명의 주체라는 명제를 믿으면서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일상화된 카리스마는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는 1991년 12월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취임하고 1992년 4월 공화국 원수에 임명되면서 군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군대 경험이 없는 김정일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책의 옷을 껴입음으로써 일정한 카리스마가 정착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는 성직자가 일정한 절차와 의례를 거친 후 그에 맞는 복장을 하고 직책을 수행함에 따라 신자들이 그에 대해 자연스럽게 종교적 경의를 표명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사실상 공식 선포된 사건으로 인해 그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다 1991년 최고사령관 취임과 1992년 원수 임명은 그가 군부에 대한 권위 행사가 상당히 경이로운 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구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취임하고 1992년 4월 원수로 임명되어 군사지도

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과 1998년 9월 수정헌법 하에서 국방 위원장에 재추대된 것은,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민간인 신분인 군 통수권자에서 원수계급장을 달고 자신의 권위를 행사한 것과 흡사한 점이 있다. 스탈린의 군사지도자적 카리스마는 실제로 전쟁 중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승리와 냉전시기 서방권과의 경쟁에 의해 입증된 것으로서 정당화의 기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⁵²⁾

1980년대와 1990년대 김정일의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정착과 함께 그에 대한 호칭도 한 단계 상승하였다. 김정일의 50회 생일을 맞이해서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서 사로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현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 최용해의 보고에서는 김일성에 게만 사용했던 “친애하는(경애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김정일에게도 사용하였다. 더욱이 김일성이 직접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여 송시(訟詩)를 지어 주었는데,⁵³⁾ 이것은 빨치산 혁명가라는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최대한 전이시키려는 연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에도 되풀이되었다.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전이하는 방법으로, 북한 당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일시하거나 김정일을 통해 김

52) 전쟁기간 동안 스탈린은 군사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일정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승리 덕택에 그의 군사적 리더십이 부각되었고, 그는 민간인 신분인 군통수권자에서 원수 계급을 달게 되었으며, 1945년 6월에는 스스로 대원수 계급을 만들어 승진하였다. 또한 전후 동구 공산권의 건설과 동서 냉전과정에서 소련의 위상 제고로 스탈린의 집권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정당화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소련에서 “위대한 스탈린”이나 “우리의 영도자”라는 호칭이 그가 지닌 다양한 직책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53) 송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원 돌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리르네. 만인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 소리 하늘 땅 뒤흔든다.”

일성이 체현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구호들을 내세웠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이고, 김일성은 김정일이다”는 구호를 통해 김정일을 김일성의 화신(personification)으로 묘사하는 것은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계승시키려는 의도였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일체적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를 원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김정일의 가계, 출생, 지적능력 등에 관한 왜곡된 묘사를 통해 카리스마적 자질을 조장하는 의도를 내보였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이 노동당 비서와 정치국 위원의 직책을 통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전이 받게 되고 1980년대 정치국 상무위원과 군사위원회 위원 등의 막강한 직책을 통해 공고화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카리스마는 대중과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라기 보다는 조직과 주변 엘리트에 대한 권위의 행사과정에서 구현되는 제도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 점에서 당시까지 김정일의 카리스마는 소위 정치지도자와 추종자의 내적 자아가 일체적 관계로 얽히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이것은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가 김정일에게 전이되는 데서 발생하는 한계일 것이다. 더욱이 일상화된 카리스마가 지니는 한계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김정일의 상승된 지위와 확대된 권력행사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칭호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힘든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일반대중의 내적 자아와 일치되는데 한계를 보인 이유는 일상화된 카리스마 자체가 갖는 한계 이외에도 권력승계가 장자상속이라는 전통적 또는 전근대적 방식에 의존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정일의 정치적 수완 및 권력 지향성과 함께 김일성

의 빨치산 동료들의 지지와 김일성의 최종 결정으로 김정일의 후계자적 지위가 확보되었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같은 결정을 뒷받침한 것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적자라는 사실이며, 이것은 바로 전근대적 왕조의 권력승계 방식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인적·혁명적 카리스마적 자질을 통한 권위행사의 정당화와는 괴리가 있는 것이거나 또는 상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의 전근대적 또는 전통적 권력승계에 따른 권위 행사는 초인적·혁명적 카리스마와는 다른 방식의 권위 행사로서, 그가 일반대중의 충동적 자아를 유도하거나 이를 결집시켜 혁명적 상황을 전개하는데는 한계를 초래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곧 전근대적 또는 전통적 권력승계 자체로 인해 일반대중 사이에서 김정일의 권력기반에 대한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와 이에 따른 권위행사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북한에서는 혁명이란 용어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사회를 풍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와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둘째로 권력승계의 문제를 미리 해결함으로써 김일성 사후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며, 셋째로 이미 오랜 기간동안 김정일이 정치지도자로서 예외적인 자질을 지녔다고 선전하는 이상화 작업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김정일의 카리스마를 내면적으로 보장해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에 대한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⁵⁴⁾ 특히 그의

54)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39~43.

카리스마적 소양을 김일성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하게 뒤지고 있음은 여러 분석에서 밝혀졌다.⁵⁵⁾

한마디로, 김일성·김정일 간의 부자간 권력승계 자체가 김정일의 권위행사에 대한 정당성에 큰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의 정당화의 기반이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전이 차원을 넘어서 일반대중의 내적 자아를 사로잡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2. 자질 검증

원래 카리스마는 특정한 사람만이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예외적인 자질이라고 정의되지만, 정치·사회적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적이든 혹은 추정되는 것이든 간에 일반 대중에 의해 일단 받아들여지면 카리스마적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이다. 특히 일상화된 카리스마 또는 그것의 전이 과정에서는 그같은 “자질이 있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카리스마적 자질이란 무엇이며, 김정일은 그러한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전이를 통해 권위를 정당화한 김정일의 자질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있어서 베버(Max Weber)가 논한 정치지도자의 일반적 자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버에 의하면, 정치지도자의 자질에는 열정(passion), 균형감각(sense of balance), 책임감(responsibility) 등이 있다.⁵⁶⁾ 첫째, 열정은

55) 대표적인 연구로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56) H. H. Gerth and C. W. Mills, *From Max Web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p. 115.

큰 목적 또는 대의명분을 위해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결코 어떤 흥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균형감각은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지적·심리적 감각을 말한다. 균형감각은 열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셋째, 책임감은 열정의 투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말한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질 있는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다. 즉, 베버는 자질을 갖춘 정치지도자는 열정, 균형감각, 책임감을 조화롭게 갖춘 사람이라고 본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정치지도자가 김정일이라는 비민주적인 독특한 인물이지만, 그의 자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베버의 세 가지가 자질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별다른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베버가 논한 열정, 균형감각, 책임감 이외에도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전이 받은 정치지도자는 비전(vision)과 자석과 같은 유인력(magnetic attraction)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카리스마적 자질에 첨가시켜야 할 중요한 요소로서 비전과 유인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지도자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이 비전을 일반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지도자의 비전은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⁷⁾ 세계관, 즉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은 장성한 이후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은 퍼스널

57) Barber, *The Presidential Character*, p. 7.

리티와 성장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인식성향이 긍정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에 따라서 정치지도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려지게 된다.

그리고 독특한 자석과 같은 유인력을 통해 일반 대중을 정치지도자의 의도대로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 자석과 같은 힘은 의도적인 것이든 또는 의도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도자가 치밀한 계산에 의해 행동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 보이든 또는 그러한 준비 없이도 대중을 흡입하는 능력을 실제로 소지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그것이 성공하면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자질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갖고있거나 이를 전이 받은 정치지도자라면 열정, 균형감각, 책임감, 비전, 자석과 같은 유인력 등을 실제로 갖추었거나 또는 갖춘 것으로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정치지도자에게는 다섯 가지 자질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에게 이것들이 실제로 갖추어져 있기보다는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대체로 열정, 균형감각, 자석과 같은 유인력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책임감과 비전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서는 김정일을 다섯 가지의 자질을 중심으로 검증해 보기로 한다.

가. 열정

김정일은 높은 열정을 지닌 정치지도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열정적인 면모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현지도(58)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원래 현지도는 군중노선의 일환으로서 정치지도자가 최말단의 생산현장까지 내려가 군중으로부터 배우고 군중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즉, 관료기구의 팽창과 명령 경제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제정책의 상의하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군중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생산현장의 실정에 맞는 생산과정과 방식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일성 집권 초기의 현지도는 상당정도 이같은 목적에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전후복구 시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는 1950년대 말 관료주의의 폐해가 점차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당시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바로 1960년 2월 강서군 청산리 협동농장을 방문하고 내세운 청산리 방법과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을 지도하면서 제기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현지도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김일성의 유일적 지배가 점차 공고화되고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정립되면서, 김일성의 현지도는 물론이고 김정일의 김일성 수행 및 현지방문은 현지의 실정에 맞는 생산과정 및 방식의 조정보다 자신들의 절대적 권위를 과시하는 방편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김일성이 현지도할 때에 내린 지시가 “교시”로 하달되는데서 드러났다. 일단 김일성의 교시가 내려지면,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넘어서 배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조직적 및 선전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⁵⁹⁾ 더욱이 교시의 남발로 인해 노동력과 물질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운영되지 못하게 되었

58) 김정일의 현장방문에 대해 원래 “실무지도”란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조선중앙년감, 1991년호부터 “현지에서 지도”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59) 유희열, “김일성 「현지도」 연구: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3권 1호 (1994), p. 226.

을 뿐만 아니라, 교시 집행에 관련되는 엘리트들과 일군들은 이를 핑계삼아 부당하고 탈법적인 일탈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김정일은 대학생 시절부터 김일성을 수행하면서 현지도와 교시 하달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의 현지도에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매년 60~70회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도가 1년 동안에 60~70회 정도인 경우, 평균 5일 또는 6일 마다 한번 씩 이루어졌을 것이다. 김정일의 현지도가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매우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정치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현지도의 두 번째 특징은 전체 횟수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여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김정일의 현지도가 김일성의 그것과는 달리 권력의 유지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김일성의 현지도는 경제부문에서 많은 비효율을 드러내는 절대적 권위의 과시를 위한 것인 반면, 김정일의 현지도는 김일성 사망, 경제침체, 식량난 등 위기적인 상황에서 정권의 보루 역할을 담당하는 군부의 확고한 지지를 획득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져 왔다. 군부대 방문은 생산현장에서의 지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찰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가 작전임무 수행과 관련된 지침을 내리고 화력훈련을 참관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넓은 의미의 현지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일의 현지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부문의 빈도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횟수의 절반이상을 군부대 방문에 할애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김정일은 매우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권유지가 최우선적으로 고

려된다는 점에서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김정일의 권력에 대해 집착하는 강박형 퍼스널리티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균형감각

김정일의 균형감각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그의 세심하고 용의주도하며 지능적인 퍼스널리티에 기초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직책과 예술적 관심을 통해서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의 균형감각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통찰력을 지닌 것이거나 타인의 비평을 받아들일 정도인가는 상당한 의문이다. 즉, 그의 균형감각은 실제적 차원보다는 인식의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면서 제출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이란 주제의 논문에서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지역 및 행정단위인 군의 정치경제적 역할을 논하였다. 그는 졸업 후 노동당 내에서 조직, 선전,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직책을 차지하고 정치지도자 수업을 받았으며, 1973년 당내 최고위의 실무직책인 비서직을 차지함으로써 국정의 전반적인 작동을 이해하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게 되었다. 더욱이 김정일은 김일성의 실질적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 김일성의 사상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그가 비교적 균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김정일의 유별난 예술적 관심은 일면 창의적인 면모와 함께 균형적 감각을 갖추게 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가 5대

혁명가극을 만드는데 깊숙이 관여하였고 이것을 상영·배포함으로써 김정일의 빨치산 동료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김정일은 또한 외국영화를 통해 많은 견문을 익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15,000여 편의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영화필름을 수집하여 수시로 관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⁰⁾ 영화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의식주와 문화와 익혔을 것이다.

김정일이 대체로 균형감각을 갖춘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근거로서, 먼저 그가 남한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김정일은 1999년 10월 1일 방북 중인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 및 정몽헌 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남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신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⁶¹⁾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은 나름대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현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서 그가 한국경제 발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여를 특별히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일 것이다.

김정일의 균형감각과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북한 사회주의의 모순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김정일을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관찰하고 그와의 대화를 녹취한 최은희·신상옥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영화, 소련 영화, 그 다음에 미국 영화도 좋은 게 있습니다. 역사물들을 취급한 것도 그런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내놓고 돌리면 또 역시 대비가 될까봐, 우리하고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 수준들이 그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 외국 영화 자꾸 돌린다고 하자. 예, 텔레비에다 대고 막 공개적으로 돌

60) 박규식, 「김정일평전」, p. 48.

61) 「한국일보」, 1999.10.11.

린다면 또 역시 허무사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하면 우리가 지금 양단패 있는데 지금 어떡해. 자기 민족적 자부심하고 그 다음에 애국투쟁 뭐 이런 게 있어야 민족심, 민족심이 강한 것도 키워야 되겠는데 아, 덮어놓고 외국 것 외국 것 좋다고 숭배만 하니까. 그래 우리 기술이 그만큼 빨리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국 것을 개방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또 우리가 지금 자체 모순에 빠져있는 문제의 하나입니다.⁶²⁾

지금 좀 과제를 꼭 주면 조건 타박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해방 직후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물질적인 이런 측면에서 의욕을 가지게끔 이런 걸 하지 않고 다른, 제도하고 관계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일년에 한 작품 나와도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주고 작품하나 썼잖아 그저 원고료 나오는데, 그 원고료라는 건 어떻게 하면 그게 주업이 돼야 되겠는데 그게 부업으로 됐단 말입니다. 예, 자기 실지 써야 될 거는 부업이 되었고 이거 안해도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국가에서 먹여 살리고 돈은 돈대로 주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의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일년에 세 개 써라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타박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배부른 흥정이지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럼 자기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지 못하고 저기 어디 휴양소 보내달라 휴양소 가야 쓰겠다,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⁶³⁾

김정일 발언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북한의 영화계의 낙후성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적 모순을 설명하고, 둘째로, 시나리오 작가들이 경쟁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동기부여가 안되어 있는 이유가 사회주의 제도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62) 최은희·신상욱, 「김정일왕국」 하권 (서울: 동아일보사, 1988), pp. 138~9.

63) 위의 책, p. 142.

균형감각이라는 자질과 관련하여, 이상의 두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의 발언이 그의 중국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영화예술분야의 대외개방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도 계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영화예술의 발전을 원하지만 신중한 검토에 바탕 하여 외부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하려는 용의주도하고 지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제도 자체가 영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들이 경쟁적 차원에서 보다 나은 작품을 쓰기보다는 이미 보장된 임금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며, 책임량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상당한 예외적 대우(예를 들어, 휴양소에서의 작업)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화예술 분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사회주의 하에서 오랫동안 굳혀져 온 동기의식의 결여라는 거시적인 문제이다. 김정일은 최은희와 신상옥에게 이러한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문제를 솔직히 비판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노력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일상화된 카리스마가 균형감각의 자질을 내포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인식됨으로써, 그 자체로서 북한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균형감각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식의 기저에는 대외 개방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를 용인할 수 없다는 치밀하고 세심한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정형화는 그의 카리스마가 일상화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근거이다. 김정일의 카리스마는 베버가 말하는 전근대

적 비합리성에 근거한 혁명적 역량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체제와 제도의 틀 안에서 획득한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어우러져 특히 대내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혁신적 방식을 택하게 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정일의 자질을 논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간혹 나타나는 행동의 특이성이 그의 정신병적 장애나 감각의 불균형에서 기인하기보다는 버릇없이 성장한 왕자와 같은 기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모성에 결핍도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정신병적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다. 유인력

김정일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자력을 가지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그가 직책을 최대한 활용한 인적 장악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의 야행성 업무 스타일은 인적 장악을 위한 근면성과 치밀성이란 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낮에는 주로 현지 지도를 통해 실무적인 일을 감독·지시하는데 시간을 보내며, 밤에는 서류를 검토하면서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업무지시를 내림으로써 전반적인 인적 및 조직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왔던 것이다.⁶⁴⁾

둘째, 김정일의 용인술은 독특해서 자신의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간부는 무자비하게

64) 위의 책, p. 73

다루지만, 다른 부분의 실수나 과오에는 대범한 편이다.⁶⁵⁾ 당 간부 중 과오를 범한 인사들은 평양 근교의 농촌지대에 운영하는 중앙당 농장과 목장에 보내 “혁명화”라고 불리우는 육체노동을 통해 사상무장을 강화하도록 한다. 전면에서 활동하는 북한 간부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재등장하면 혁명화에 갔다왔다고 보아야 한다.⁶⁶⁾

셋째, 실제로 김정일은 간부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경완에 의하면, 보고서를 속독하고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수정을 지시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또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거의 없을 정도여서 피아노, 바이올린 등도 수준급인데다 노래 실력도 대단하다는 것이다.⁶⁷⁾

따라서 김정일은 일반적으로 비민주적 지도자가 인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소, 즉 주변 사람들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고 충성심을 유도해내는데 있어서 강제력과 함께 유인력을 동시에 일정 정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⁸⁾

주목할 것은 김정일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활용하여 대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석과 같은 유인력은 치밀하고 용의주도하며 증오와 애정이 뒤섞인 퍼스널리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의 유인력은 심리적으로 타인의 경쟁을 제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종(manipulation)을 위해 그렇게 인식되도록 조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5) 고영환(전 북한 외교관)과의 면담, 1999.6.15.

66)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p. 89.

67) 위의 책, pp. 92~3.

68) 이같은 점은 전형적 전체주의 지도자였던 히틀러에게서 나타났다. 월터 랭거, 최중배 역, 「히틀러의 정신분석」(서울: 숲, 1999), pp. 103~4.

라. 비전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용의주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정일이 비전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그의 높은 열정적 정치활동도 국가적 미래의 비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권력보호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전의 결여는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전이 받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김정일의 정형화된 문제해결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정일의 일상화된 카리스마는 대내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혁신적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기존의 익숙한 대응방식을 반복하는 이른바 “능력의 함정”(competency trap)⁶⁹⁾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김정일 자신이 사회주의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개혁·개방과 같은 새로운 접근보다는 외부사조의 유입을 철저히 막으면서 실리를 취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마. 책임의식

김정일의 책임의식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전이 부족한 정치지도자는 높은 책임

69) 능력의 함정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James G. March and Johan P. Olsen,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89), p. 63.

감을 갖기 힘들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일성이 후계자인 김정일에게 책임을 회피한 채 권력을 장악하는 학습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1996년 12월 김정일이 행한 비공개 연설에서 당과 군을 장악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말라고 한 김일성의 조언을 인용한데서 나타난다.⁷⁰⁾ 김정일의 책임회피 성향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서도 드러나는 바, 국정의 역할 분담을 의도한 것처럼 시사한 반면 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기구를 개편하였다. 또 그의 책임회피 성향은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드러난다고 하겠다.

정치지도자의 책임회피 경향은 단지 김정일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일정한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지도자들로부터도 책임회피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스탈린은 책임감과 관련하여 양면적으로 평가된다. 그가 책임감을 지닌 지도자였다는 점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대독전쟁을 수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최고 직책에 남아 있었던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공산당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국가방위위원회, 최고간부회의와 같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책임회피의 소지를 마련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번영된 중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숙청의 역경을 이겨낸 등소평도 특히 직책과 관련해서 책임회피의 성향을 보인 측면이 있다. 그는 1978년 집권한 후 호요방, 조자양 등을 총서기로 내세워 개혁·개방 등 국정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책임의 소재를 따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들을 차례로 총서기의 직책에서 물러나게 만

70)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 연설문,”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p. 309.

들었다. 물론 등소평 자신은 제2선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배후에서 관리하였다.

이렇게 타 사회주의체제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최고지도자의 책임 회피는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는데 일정정도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고지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도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V. 통치스타일과 정치체계의 운용

1. 형식주의 모델과 경쟁적 모델의 혼용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그의 강박형 및 냉철형, 적극적·부정적 퍼스넬리티와 일상화된 카리스마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2장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정일의 퍼스넬리티 유형과 카리스마의 속성은 대체로 형식주의 모델을 따르면서 경쟁적 모델을 다소 혼용한 통치스타일을 나타나게 한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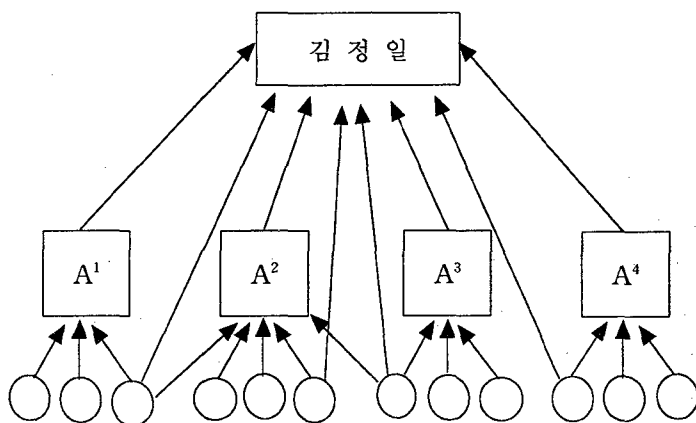
김정일은 노동당, 인민군, 내각, 공안기구 등을 별도로 장악하고 정보를 취합하면서도 이들 사이에는 정보의 흐름이나 핵심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삼가게 한다. 그의 지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내려지며 그 자신에 의해 직접 점검된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조정이 있으며 협의도 있다. 그러나 지침에 따른 일상적 업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특별한 임무를 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각 기구의 최고 직책의 소유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그는 차차계선 또는 차차계선의 직책을 가진 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임무도 주고 보고도 받는다. 따라서, 공식적인 직책상의 서열이 실질적인 서열과 다르기도 하며 심지어는 뒤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민무력상인 김일철은 실질적 서열에 있어서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나 총참모장인 김영춘보다 결코 높지 않다.⁷¹⁾ 김정일은 오히려 조명록

71) 국가정보원이 1999년 10월 1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북한 권력서열에서 조명록은 3위, 김영춘은 11위, 김일철은 12위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1999.10.16.

과 김영춘에게 나름의 임무를 주고 관리한다. 김정일은 위계와 경쟁을 혼용한 이와 같은 통치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의 고유한 퍼스낼리티 및 카리스마가 어떻게 이러한 유형의 통치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가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자.

<그림 5> 김정일의 통치스타일 모델



먼저 김정일의 퍼스낼리티가 형식주의적 통치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김정일의 강박형 퍼스낼리티의 요소는 주로 형식주의적 통치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강박형 퍼스낼리티는 대체로 확일적이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 여기는 동시에 매사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처리하는 바, 공개된 토론이나 의견교환보다는 조직과 기구를 활용하여 엘리트층과 사회저변을 통제하며 당, 정, 군

의 각 보고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같은 성향은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의 종합과 판단이 모두 최고지도자인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형식주의적 통치스타일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김정일의 적극적·부정적 퍼스넬리티 중에서 “부정적” 요소도 형식주의적 통치스타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요소는 특히 김정일이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여 국정에 관여하는 동시에 완전한 권력독점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낳는다. 따라서 이런 퍼스넬리티의 소유자인 김정일은 노동당과 군대의 각 위계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식주의적 통치스타일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정일의 냉철형 퍼스넬리티의 요소는 일정 정도 경쟁적 통치스타일에 기여한다.

첫째, 김정일의 냉철형 퍼스넬리티가 경쟁적 통치스타일을 낳게 하는 부분이 있다. 모성에 결핍에서 비롯된 신뢰감 구축의 장애로 인한 의혹, 불신감, 경쟁심, 질투심 등은 권력독점에 대한 불안감 또는 초조감 때문에 경쟁을 위주로 한 통치스타일을 택하게 된다. 또한 호기심이 많아 매우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애정과 증오가 교차하는 그의 퍼스넬리티는 경쟁과 견제를 기초로 하는 통치스타일을 선호한다. 따라서 그는 형식주의 모델을 따르면서도 일부 경쟁적 모델의 요소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김정일은 실제로 각 기구의 최고직책의 보유자 이외에도 자신의 심복으로 그 하위직책의 간부를 직접 관리하거나 공식 기구의 경계를 뛰어넘어 일정한 임무를 중복적으로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이 경쟁적 통치스타일의 요소를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김정일의 적극적·부정적 퍼스넬리티 중에서 “적극적” 요소 또한 경쟁적 통치스타일을 일부 취하게 만들고 있다. 적극적 퍼스넬

리티 소유자로서의 김정일은 끊임없이 권력을 지향하는 동시에 자의적 권위 행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바, 엘리트들로 하여금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이 김정일이 통치스타일로서 경쟁적 요소를 취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일의 정당화의 기반도 미약하나마 통치스타일에 영향을 준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의 전이를 통해 정당성을 모색하였는 바, 그는 주로 주변의 핵심 엘리트들이나 당, 정, 군의 각종 기구를 통해 국정을 다루는 형식주의적 모델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상화된 카리스마는 주로 제도적 직책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일반대중 및 엘리트층과의 내적 일체감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권력 유지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따라서 언제나 엘리트들 사이에서 견제와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 고유의 퍼스널리티와 정당화의 기반은 주로 형식주의적 모델에 경쟁적 모델이 가미된 통치스타일을 구사하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쟁적 모델의 요소로서, 여기저기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은 최근 심각한 경제침체와 식량난으로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범죄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권력기구 내에서도 현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자, 국가안전보위부가 사회전반의 공안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내 보위사령부로 하여금 군대내는 물론 국가안전보위부의 대상영역에도 관여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교관들의 망명이 점증하자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도 보위사령부에서 나간다고 한다.⁷²⁾ 또한 인민무력상 김일철이

72) “국가정보원장 퇴임후 최초 인터뷰,” 「월간조선」, 1999년 9월호, p. 111.

공식적으로 인민군의 고위 직책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정 치국장 조명록과 총참모장 김영춘이 서열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3 자간에 견제와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즉,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모델의 요소는 기구들 사이에서 그 리고 엘리트들 사이에서 고유의 영역과 직책을 넘어서는 견제와 경 쟁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서는 집체적 모델의 요소가 거 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집체적 모델은 최고지도자의 권 위의 정당성이 공정한 선거에 의해 근거한 민주적 정치체계에서 주 로 나타나며, 권력이 분산되어 정책결정이 정치국과 같은 기구에서 집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지도체제의 사회주의에서 부분적으로 드 러나는 유형이다. 다시 말해,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체계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카리스마의 예외적 자질이 매우 높고 혁명적 인 언행으로 일반대중의 내적 자아와 일체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지 도자는 약간의 집체적 모델의 요소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처 럼 카리스마가 제도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집체적 모델의 요소 가 곧 권력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쉽사리 택할 수 없는 대안일 것이다.

2. 통치스타일의 특징

가. 당·군의 분할통치

김정일의 형식주의적 및 경쟁적 통치스타일로 인하여 통치의 전형 적인 전술인 분할통치(divide and rule)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는 먼저 김정일이 집권을 연장하고 직책에 따른 권위를 충분히 행사

하기 위해서 분할통치하는 행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김정일의 분할통치 행태는 스탈린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스탈린은 권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과정에서는 공산당에 최고의 권한을 주면서 활용하지만, 일단 자신의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권력의 누수와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 공산당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를 통해서도 권위를 행사하였다. 김정일도 1990년대 들어서, 특히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에 스탈린의 행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일은 승계구도를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또는 김일성의 후광 밑에서 노동당의 조직지도부를 활용하여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우선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중앙당으로부터 지방당으로 내려가는 모든 지시와 문서가 김정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당 조직을 위에서 아래까지 철저히 장악하였다.⁷³⁾ 여기서 중앙당의 조직지도부는 사전 승인의 절차를 전담하였으며, 각급 간부의 직무를 규범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한 「당 사업 지도서」를 통해 간부들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철저히 차단하였다.⁷⁴⁾

그러나 김정일은 김일성이 매우 연로해진 이후에는 노동당을 통해서서는 물론이고 인민군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통해 권력을 강화해나갔다. 그는 1991년 12월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취임하였고, 1992년 4월 공화국 원수에 임명되었으며,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김정일은 당 조직을 통하지 않고서도 군 직책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써 군사적 리더쉽과 관련한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더욱이 1994년 7월 김

73)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60~1.

74)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53~4.

일성이 사망하자 노동당의 공식기구의 역할을 무시한데다 일부 간부들을 숙청하고 사적인 채널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서는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보호를 위해 군 직책을 더욱 강화하였는 바, 국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장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제고시킨 데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김일성이 주석직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현행 헌법하의 국방위원장의 위상은 훨씬 높아졌다. 이는 사회주의 대변력과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비상체제하의 권위구조의 재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스탈린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국가방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이를 중심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다룬 것과 매우 흡사하다.

주목할 것은 김정일의 군 직책 강화와 권력 확장에 비례해서 노동당의 중요한 집단적 정책결정 기구인 정치국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당의 전반적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정치국을 비롯한 중앙당 기구의 활성화가 권력의 분산 또는 누수를 가져와 자신의 유일적 지배를 저해하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자신의 권력 보호 차원에서 노동당 고위간부들이 중앙기구를 운용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앙당 차원에서 비서국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국이 사실상 기능 마비된 상태에서 비서국은 노동당을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 것이다.⁷⁵⁾ 현재 비서국은 노동당 전반, 인민군, 사회조직을 관장하는 수많은 부서가 있으며, 이것들을 비서들이 기능에 따라 몇 개씩 묶어 관리하고 있다. 이는 모든 조직을 직접 관리하려는 김정일의 의도에도 맞는 구도이다.

75) 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조직과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9년 12월 2~4일, p. 9.

물론 김정일이 노동당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당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 즉 정책적 지도 기능과 사회통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정책적 지도 기능은 현저하게 추락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통제 기능은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의 하위조직은 어떤 다른 정보 및 안전 기구보다도 광범위하게 사회기층 단위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사회통제를 위해서 노동당조직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⁷⁶⁾ 다시 말해,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노동당의 통제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군의 전반적 역할 강화를 실질적으로 군대의 권력강화란 차원보다는 분할과 견제를 통한 권력기구 운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현지도에서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등 군부의 고위인사들을 대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노동당내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집단적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이들이 집단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중앙당의 운영에 군부가 깊숙이 개입할 우려가 있으며, 중앙당은 결국 군부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조직의 직접 장악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서 나타나는 분할통치와 직접통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는 분할통치를 통해 국정운영에 있어서 경쟁적 요소를 살리면서 동시에 직접통치를 통해 각 조직을 개별적으로

76) 노동당의 통제 기능은 주로 당생활총화, 지도·검열, 입당 및 인사권 등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북한 조사연구」, 1권 1호 (1997), pp. 17~37.

장악한다. 양자는 정권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결코 서로 모순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조직에 대한 그의 직접 장악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간 권력승계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김정일의 개인적 권력욕 또는 조직 장악에 대한 욕구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밀하게 말해, 그가 조직 장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김정일은 퍼스널리티에 있어서 정권에 대한 집요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퍼스널리티 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성애 결핍에서 비롯된 타인에 대한 신뢰성 구축의 장애는 그로 하여금 순종적이거나 규율에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보다는 자기 보호의 욕구를 부추겼다. 또한 김성애와의 관계 속에서 이같은 성향은 더욱 강화되었음에 틀림없다. 결국 김정일의 퍼스널리티는 가능한 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활용하여 권력조직을 장악하고 이로써 정권에 대한 집착을 현실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 조직장악에 대한 관심은 김일성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김일성의 후광을 업고 공적인 자원과 인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그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조직을 직접 장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혜택을 김정일은 자신의 조직장악에도 활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김정일은 김일성대학 재학시절에 대학 당 위원회 소속이면서도 노동당 중앙의 주요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 정치위원회 회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해 정치위원회, 내각회의, 최고인민회의, 군 계통의 군사간부회의 등 중요한 회의에 대개 참석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⁷⁷⁾ 이처럼 김정일이 학창시절에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로서, 그의 퍼스널리티와 결합되어 조직 장악력을 높여주었다.

셋째, 직책에 따른 카리스마 또는 직책 자체가 그로 하여금 조직 장악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주었다. 일상화된 카리스마는 초인적인 능력보다는 제도를 통해 얻어진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의 위상이 보장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31세인 1973년에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중앙당 업무 특히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책에 따른 카리스마는 정권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못하며, 이에 정치지도자는 보다 높은 직책과 확고한 지위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자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김정일은 바로 이런 점에서 최고위의 직책을 원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장악은 그의 정권욕과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것은 김정일이 조직을 장악하는 방식이다. 김정일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조직에 대해 검열을 실시함으로써 접근해 간다. 그는 (1) 검열을 통해 조직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2)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제고시키며, (3)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를 내리고 이것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면서 조직 장악을 마무리한다.

여기서는 대남사업 분야에 대한 조직장악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⁷⁸⁾ 김정일이 대남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은 1975년 6월부터이다. 즉, 그가 1973년 후계자로서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의 직책을 차지했

77) 중앙일보사, 「김정일」, p. 67.

78)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pp. 176~193.

음에도 불구하고 대남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동안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단지 당시 대남비서였던 김중린과 관련분야 간부들이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6년 6월부터 김정일은 대남사업에 대해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마련하기 위해 연락부, 문화부, 조사부에 대해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검열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는 검열을 통해 인사·조직문제, 사업활동 등에 대해 파악하고 동시에 기존 조직의 일상성과 연속성을 뒤흔들어 조직과 간부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당시 검열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비서국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검열 요원들은 조직지도부 검열과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이 검열에서는 해방 후 30년간의 대남공작사업 전반을 뒤집는 작업이었다.

김정일이 참석한 당 총화보고에서 대남사업의 결함, 착오,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토론을 통해 대남사업 관련 간부들뿐만 아니라 비서인 김중린까지 모든 이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김정일은 여기서 그 동안의 대남사업이 영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사업수행에 있어서 당의 결정과 김일성의 교시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공명주의와 독단주의, 관료주의가 작용했다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김정일은 검열과 총화를 통해 대남부서들을 뒤흔들어 놓고 이를 통해 자신의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 그는 대남비서인 김중린을 대남비서와 정치국 위원에서 해임하고 대남비서제를 폐지하고, 조직개편과 인사조치를 통해 대폭 물갈이하였다. 즉, 검열과 총화를 통해 김정일은 대남사업을 직접 장악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이로서 모든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한 것이 김정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의 조직 장악력은 그의 치밀한 퍼스널리티와 준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가 김일성 사망 후 다른 사회주의에 서와 같은 권력투쟁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기초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에 대한 김정일의 직접 장악은 분할통치와 함께 그의 통치스타일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에게 있어서 분할통치가 권력기반의 고차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전술인 반면에, 조직장악은 권력기반의 저변에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 과시적 및 과격적 행태

김정일은 간혹 과시적 스타일을 내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정일의 김일성 3년상 지키기,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 대형 조형물의 설치,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시 경로우대의 제스처 등은 변화무쌍한 과시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한 것은 이것이 그의 자아 방어 메커니즘으로서의 치환에 의해 나타난 것인 동시에,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카리스마적 이미지를 조장·부각하고 집권을 정당화하려는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은 기본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행동하는 스타일이지만, 직책에 따른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공고화하기 위해 가끔 과시적 통치스타일을 적절히 배합하기도 한다.

이미 퍼스널리티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의 이러한 과시적 스타일은 일반 주민에게 매우 대담한 정치지도자로 각인시키는 데 기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후 주민들은 이른바 지도자를 잃었다는 심리적 위기의식 속에서 표류하는 복종심(*free floating*)

obedience)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해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은 이것을 지도자-대중간의 일체화된 관계를 조장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런 과정은 또한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가치박탈에 따른 자아 방어 메커니즘으로서의 치환(置換)이었으며, 주민들은 오랜 자아포기에 의해 “명령기대 심리”⁷⁹⁾를 갖게된 상태에서 과시적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특수성을 강조해 온 고맥락적 문화(high-context culture)⁸⁰⁾를 가진 북한에서 가능한 일이다.

또한 김정일은 파격적 스타일의 요소도 보인다. 이는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될 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은데서 잘 드러난다. 그는 노동당 조선인민군 대표회, 도·직할시 대표회, 성, 중앙 및 도당 기능을 수행하는 당 조직들의 대표회에서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뒤, 1997년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연명으로 최종 추대를 선포하는 방식을 택하게 했다. 그의 파격적인 스타일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 때도 일반의 예상을 깨고 국가 주식제를 폐지했으며 자신의 국방위원장 직책을 실제적 국가수반으로 규정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김정일은 노동당의 결정구조와 원칙을 형해화하는 파격의 일상화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⁸¹⁾

이와 같은 통치스타일상의 파격적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김정일 정권의 존속을 도모하고 자의적 권위 행사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탈린의 스타일과 흡사하

79) 백상창, 「김일성의 정신분석」 (서울: 등대출판사, 1980), pp. 186~7.

80) 고맥락적 문화란 행위와 인식의 고유성과 상황 및 조건에 따른 차이점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 David Matsumoto, *Culture and Psycholog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6), p. 51.

81) 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p. 15.

다. 스탈린은 공산당의 중앙위원회는 물론이고 정치국의 의사를 무시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중에는 특히 국가방위위원회가 정치국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도록 만들었다. 더욱이 1939년의 18차 공산당대회가 열린 지 13년만에 열린 1952년 19차 공산당대회에서는 조직국과 정치국을 완전히 해체하고, 대신 중앙위원회 최고간부회의(Presidium of the Central Committee)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 수준의 정책결정 기구가 아니었는 바, 이는 35인의 위원과 후보 위원들이 모두 2류 인물들로 채워진 점에서 알 수 있다.⁸²⁾

3. 정치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

가. 김정일의 과부하된 의사결정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이 북한의 정치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의사결정이 김정일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그는 과부하(overload)에 걸려있다는 점이다.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비민주적 정치체계에서 과부하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현 정치체계는 그의 독특한 통치스타일과 결부되어 의사결정의 과부하 현상을 낳고 있다.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형식주의 및 경쟁 모델의 혼합형으로서, 정권 유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의 권위에 버금가는 제2인자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한다. 이러한 통치스타일에 의하면 “권한의 위

82) 로버트 맥닐, 이병규 역, 「블세비키 전통」(서울: 사계절, 1983), pp. 150~1.

임”과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198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통과된 수정 헌법에서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 사이에 권력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또는 김정일이 지닌 권한의 일부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과 내각 총리인 홍성남에게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 권위관계 구조(formal structure of authority relations)가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다시 말해, 수정 헌법에서의 실질적 권위관계 구조는 권력분할도 아니며 권한의 위임도 아니라는 분석이 옳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권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권한의 위임이나 권력분할의 여지를 남기는 권위관계 구조를 부정하게 되었다. 이같은 권위관계 구조하에서의 의사결정은 자연스럽게 김정일에게 집중되기 마련이었다. 김정일 주변의 핵심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에서 최소한의 권한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질만한 어떤 제안을 김정일에게 올리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다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혁신적 문제해결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먼저 김정일에게 의사결정이 과부하 되는 현상은 그의 공문처리에서 드러난다. 그는 노동당, 내각, 인민무력성,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등 권력, 행정, 공안기구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문건을 전부 읽고 결제하는 바, 자신의 참모나 개인 비서에게 넘기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일주일에 접하는 문건의 분량은 대략 500쪽 이상으로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³⁾

83) 고영환(전 북한 외교관)과의 면담, 1999.6.15.

또 의사결정이 그에게 과부하 되는 현상은 1995년 평양내 미국측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일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북·미 핵합의) 당시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하는 것 이외에도 실무자 회담을 통해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1995년 중에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실무자 회담이 진행될 때, 미국은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평양 소재 전 동독대사관을 사무소 예정지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관청이 평양에 주재하는 것을 주저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개인적 의사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외교부가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를 고민 중일 때, 김정일은 설치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후, 영향평가, 재검토, 동의, 재검토, 부정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⁴⁾ 여기서 드러난 것은 김정일이 매우 치밀하고 심사숙고하는 한편 과도한 의사결정의 집중에 따른 결단 지연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권에 대한 집착은 이상과 같은 의사결정의 과부하를 낳고, 이것은 다시 단독결정에서 비롯되는 결정의 번복 또는 과도한 심사숙고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 수평적 의사소통 결여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형식주의 모델과 경쟁적 모델을 따름으로써 수평적 의사소통은 부재하게 된다. 형식주의든 경쟁적이든 모두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에게 보고가 집중되며, 참모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정일은 다양한 견해를 듣

84) 현성일(전 북한 외교관)과의 면담, 1999.12.2.

게 될 수는 있지만, 이들 사이의 견해차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와 그 견해차를 뛰어넘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김정일의 통치스타일로 인한 수평적 의사소통의 결여는 그의 군사 직책의 수여와 함께 그가 노동당은 물론이고 인민군에 대해서도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김정일은 1991년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2년 공화국 원수,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일련의 직책을 차지하면서, 그의 권위행사는 노동당뿐만 아니라 인민군을 포함한 전 분야의 권력기구에 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주요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노동당의 각종 기구, 즉 정치국, 비서국,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등을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에 직접 지시와 집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황장엽의 증언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국제정세와 관련된 군대내 정치교육 문제에 대해서 노동당내 국제부와 국제비서의 의견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민군 총정치국에 직접 지시를 내리게 된다.

특히 정치국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중앙당 차원에서 고위 엘리트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기회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김일성 생전에는 정치국이 의사결정 및 집행의 기능을 일부나마 수행했다. 비록 집체적 모델의 전형을 따르는 통치스타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김일성은 정치국에서 자신의 노선과 의도를 표출하였고 형식적이거나 동의를 의사결정으로 공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것은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미지 속에 카리스마를 구현한 김일성에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와 매우 대조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정치국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평적 의사소통의 결여는 참여와 설득에 바탕한 의사결정 대신에 수동적 동의에 기초한 정책의 집행만을 낳고 있다. 노동당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예전처럼 의사와 약사의 역할분담을 하면서⁸⁵⁾ 조직 및 사회통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의사소통의 결여로 통제만 존재할 뿐 참여의식의 부재와 정권에 대한 정체감의 결여를 초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다. 혁신적 문제해결 불능

김정일의 의사결정 과부하와 의사소통의 부재는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의 상실을 수반하게 된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일과 고위 엘리트들의 책임회피적 성향은 결코 혁신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북한의 언론매체에서 인용되는 김정일의 발언, 즉 “나에게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혁신적 접근을 저해하는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개혁·개방” 용어에 대한 거부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상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고위 엘리트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담론을 억제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장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변화를 내포하는 담론은 불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85)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관계를 “조직부는 의사와 같고 선전선동부는 약제사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양대 부서가 각종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선전선동을 대응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협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220.

변화에 대한 담론의 불가능과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와 개념의 부재는 결국 내투입(withinput)⁸⁶의 부재로 인한 정치체계의 경화현상(ossification)을 낳게 된다. 정치체계는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따른 투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체계 내부의 당국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견과 대응 의식에 바탕한 내투입에 의해 자생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체계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내투입에 의해 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변화를 통해 존속해나가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사회로부터의 요구 투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투입마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지체(retardation of adaptive process)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난과 경제침체로 인해 사적 영역이 팽창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 의식은 거의 소멸한 상태이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⁸⁷ 그러나 북한에서 개혁·개방과 같은 요구가 사회로부터 체계에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변화에 대한 내투입이 부재한 상황이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변화에 대한 요구의 투입이 체계의 안과 밖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의사결정이 집중된 정치체계의 경화현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뿐이다.

물론 북한이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체계란 마치 유기체와 같아서 환경에 대한 일정한 적응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게

86) 내투입 개념에 대해서는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p. 54~6.

87)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35~8.

되면 존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도 하나의 개방체계로서 생존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체계의 적응정도는 국제적 및 사회적 변화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대외관계 특히 미사일 발사문제와 관련 일부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향후의 대응방식은 미지수인 채로 남아있다. 또한 1998년 9월 수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고(제24조) 거주·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제75조) 내용 등은 이미 발생한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이며, 내투입에 의한 혁신적 변화의 추구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요약하자면,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정권 유지에 머물러 있는 나머지 혁신적 문제 해결에 상응하는 내투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체계의 적응지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체계의 적응지체 현상은 정치와 경제·사회 사이의 괴리를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VI. 결 론

한 정치지도자의 행위는 비용과 효용을 따지는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는 자신이 성장한 배경 및 현재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 고착화된 스타일과의 종합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타산과 함께 심리적 및 사회적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정치적 행위 또는 통치 행태는 일정한 구조적 상황속에서의 합리적 판단이 퍼스넬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 등과 통합되어 나타나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의 퍼스넬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은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세 가지의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오랜 기간을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되었다. 또한 이것들은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면서 정치적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는 이에 대해 일정한 기대와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정일에 관한 연구는 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온 까닭에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물론 본 연구도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김정일 관련 자료들을 모아 퍼스넬리티, 정당화의 기반, 통치스타일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보아 재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세 가지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연계를 제 II장의 <표 1>에 서와 같이 나름대로 도식화시키고 여기에 김정일의 사례를 적용하는 접근을 택했다.

김정일은 퍼스넬리티에 있어서 강박형 요소와 냉철형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부정적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퍼스넬리티에서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에 비해 성과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 적은데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상존하게 된다. 노력과 보상 사이의 심리적 괴리는 “사적 동기를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라스웰식의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김정일에게서는 정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모성에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 구축의 장애 현상은 자기보존에 대한 강박적 관념을 갖게 만들었고 또한 애증의 감정 극단화를 겪게 만들었다.

김정일의 퍼스낼리티는 자아의 방어 메커니즘으로서 대범함을 보이는 광폭정치로 치환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극화형을 동경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그는 실제로는 치밀하고 용의주도하여 사소한 일애 신경을 쓰는 동시에 의혹, 불신, 애증이 교차하는 심리상태를 보이는 지도자이다. 그러나 남 앞에서는 대범하게 보이기 위해 과시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기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기존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예외적 자질에 기초하기보다는 제도적 직책을 획득하고 이상화를 통해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전이 받음으로써 여기에 배태된 권리와 자질을 부여받았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해왔다. 그는 1970년대 초부터 노동당의 핵심 직책을 차지하고 당권에 깊숙이 개입하는 동시에 김일성주의를 선언하여 스스로 주체사상의 유일한 권위적 해석자가 되었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민군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의 군 관련 직책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성직자가 특정한 직책을 가지고 의상을 걸침으로써 경외스러운 카리스마를 전이 받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김일성에 의해 일상화된 카리스마를 김정일이 전이 받는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김정일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일체적 관

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러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 김일성”이라는 구호를 통해 김정일을 김일성의 화신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간부들과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새로운 혁명적 동원으로 이끌기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과 연계시켜 예를 들어본다면, 현재 북한에서 진행중인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

또한 카리스마의 전이는 김정일의 권위행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김정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으로서, 지도자적 자질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하여 심리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그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되어 많은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김정일의 퍼스넬리티 및 카리스마 유형과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는 형식주의 모델과 경쟁적 모델이 혼용된 통치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 퍼스넬리티가 통치스타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그는 확일적이고 엄격하며 용의주도한 퍼스넬리티로 인해 공개된 토론이나 의견교환보다는 조직과 기구를 통한 통제를 가하는 통치스타일을 띠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의혹, 불신감, 경쟁심, 질투심으로 인한 권력독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경쟁과 견제에 바탕을 둔 통치스타일을 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그의 지도자적 이미지가 자신만만한 혁명적 또는 초인적 카리스마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 결정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최종 결정을 자신이 내리는 집체적 모델의 통치스타일은 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은 노동당, 인민군, 내각, 공안기구 등을 별도로

장악하고 정보를 취합하면서도 이들 사이에는 정보의 흐름이나 핵심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삼가 하게 한다. 그의 지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내려지며 자신에 의해 직접 점검된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일정 수준에서는 협의·조정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임무를 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한편, 김정일은 각 기구의 최고 직책의 소유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그는 차계선 또는 차차계선의 직책을 가진 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임무도 주고 보고를 받는다. 따라서 공식적인 직책상의 서열이 실질적인 서열과 다르기도 하며 심지어는 뒤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민무력상인 김일철은 실질적 서열에 있어서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나 총참모장인 김영춘보다 결코 높지 않다. 김정일은 위계와 경쟁을 혼용한 이와 같은 통치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이상과 같은 분석만으로 현 정치체계의 향방을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김정일의 퍼스널리티, 카리스마, 통치스타일에 비추어 보건대 정권 차원에서 북한 정치체계는 일정기간 동안 별다른 동요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부적인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대외관계의 변화된 부분을 인정하거나 수용하면서 소극적 적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이상의 퍼스널리티, 카리스마, 통치스타일을 지닌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정치체계가 거시적·장기적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지체(retardation of adaptive process)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의사결정의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고, 관료기구 및 간부들 사이에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차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내투입의 부재로 인한 정치체계의 경화 현상으로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랑거, 윌터. 최종배 역. 「히틀러의 정신분석」. 서울: 솔, 1999.
- 맥닐, 로버트. 이병규 역. 「볼셰비키 전통」. 서울: 사계절, 1983.
- 박규식. 「김정일평전」. 서울: 양문각, 1992.
- 백상창. 「김일성의 정신분석」. 서울: 등대출판사, 1980.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5.
- 세키가와 나쓰오 외. 김중우 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서울: 청정원, 1999.
- 양성철. 「북한정치론」. 서울: 박영사, 1991.
- 에반스, 리차드. 문수식 역. 「등소평이야기」. 서울: 아이북스, 1995.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전현준. 「김정일 리더쉽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서울: 지식공작소, 1996.

- 중앙일보사. 「김정일」.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최은희·신상욱. 「김정일왕국」 하권. 서울: 동아일보사, 1988.
-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탁진 외. 「김정일지도자」 1, 2. 동경: 동방사, 1984.
- 통일원. 「김정일우상화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2.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 Balfour, Sebastian. *Castro*. London: Longman Group, 1995. 2nd edition.
- Barber, James D. *The Presidential Character: Predicting Performance in the White Hous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5. 3rd edition.
- Durkheim, Emil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65.
- Easton, David.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 Elster, Jon. *Politic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George, Alexander L. and Juliette L. George. *Presidential Personality and Performanc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8.
- Gerth, H. 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 Greenstein, Fred I. *Personality and Politics: Problems of Evidence, Inference, and Conceptu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Lasswell, Harold D.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W. W. Norton Co., 1958.

- Lindholm, Charles. *Charisma*. Oxford: Blackwell, 1990.
- March, James G. and Johan P. Olsen.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89.
- Matsumoto, David. *Culture and Psycholog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6.
- Staw, Barry M. *Psychological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Behavior*.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95. 2nd edition.
- Sundel, Martin and Sandra Sundel. *Behavior Change in the Human Servic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9. 4th edition.

2. 논 문

- 김정일.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당중앙위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신일철. “김정일체제관리경론과 그 연명술,” 「김정일 체제관리론의

분석과 전망」(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창립 1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유호열. “김일성 「현지도」 연구: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3권 1호 (1994).

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조직과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9년 12월 2~4일).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 1권 1호 (1997).

3. 면담자료

고영환(전 북한 외교관)과의 면담, 1999.6.15.

현성일(전 북한 외교관)과의 면담, 1999.12.2.

4. 기 타

「문화일보」.

「연합뉴스」.

「월간조선」.

「중앙방송」.

「한국일보」.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흠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육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의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흙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현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제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동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넬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으로부터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제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김정일의
퍼스널리티 · 카리스마 · 통치스타일

인쇄/1999년 12월 28일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북한경제사회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6 팩시밀리 901-2544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ISBN 89-87509-86-9

5,000원